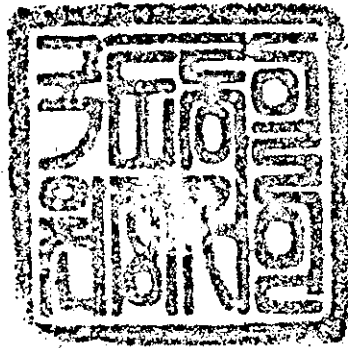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南北單一目 構成・參加關聯

第7次 南北體育會談 會議錄

1990. 1.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9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 1.18(木) 10:00 ~ 12:35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地域「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張 忠 植 (大韓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김 형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學 來 (大韓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p> <p>任 台 淳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曹 英 承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장 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서 기 장)</p> <p>김 세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허 혁 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張忠植) : 안녕하세요?

北(김형진) : 예, 안녕하세요?

(記者들 寫眞撮影)

南(張忠植) : 자, 앉읍시다.

北(김형진) : 그간 어떻게 다 건강하셨습니까?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아직은 正月달인데 설 名節도 잘 쉬셨는지요?

南(張忠植) : 예. 저희들이 新正에는 이틀을 늘고 舊正에는 사흘을 늘게 됩니다.

北(김형진) : 그쪽에서도 눈이 왔습니까?

南(張忠植) : 서울은 이제 눈이 녹았고요. 여기 오는데 거의 다 와서 눈이 온것 같아요. 땅이 미끄럽더구만요.

北(김형진) : 이 北半部 地域에는 어제 저녁에 눈이 왔습니다.

南(張忠植) : 아, 그렇습니까?

北(김형진) : 예. 설에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마치 아침에 보니까 그 雪景같기도 하고.

南(張忠植) : 어제 내려오셨나요?

北(김형진) : 예. 어제께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體育會談이 1月달 새해 들어서서 제일 먼저 會談

을 시작하죠?

南(張忠植): 예. 그렇습니다.

北(김형진): 역시 우리가 전에 約束한대로 다른 會談보다 앞장서서 달리
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우리 이제 한살 더 먹었어요. 작년 3月9日날 시작해 가지
고 한살 더 먹었는데요.

北(김형진): 張先生님 이제 그 나이가 있는데 아주 몸 注意해야 되겠습
니다. 한살 더 잡수셨는데.

南(張忠植): 그래서 오늘 내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포만나러 여기와서 오늘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
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北(김형진): 그래서 1月달 새해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會談
이 다른 會談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하고 또 우리가 이미 約束한 것도
뒤 體育人들이기 때문에 남한테 뒤지기를 싫어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會
談도 妥結을 잘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 會談을 앞장서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아마 張先生님도 아실겁니다. 國際議會同盟 書記先生께서 우리
側이 國際議會同盟機構 84次 總會를 平壤에서 열데 대한 이런 提起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側에서도 國際議會同盟 書記局이 提起한대로 나
라의 統一偉業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면 아마 우리가 議會同盟 總會를 우
리한테서 開催할 이런 意向을 表示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貴側의 議會同盟 金在淳 委員長 先生님께 議會同盟 84次
總會때부터 北과 南이 唯一代表團을 派遣하자 하는 提議를 하면서 이제

北南議會同盟會談을提起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張忠植):예. 내 아침에 新聞봐서 알고 있어요.

北(김형진):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여러갈래의 會談도 있고 또 게다가 이런 여러가지 會談들이 希望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우리가 1月달에 선참 會談을 하는데 자만하지 말고 아마 張先生님 누누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結實을 내서 이 會談에서 妥結돼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張忠植):이 體育會談에 임하는 責任이 상당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體育會談이 잘 돼서 지난해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赤十字會談도 잘 됐으면 하고 있고, 또 지금 金團長님께서 말씀하신 그 議員들께서도 잘 일들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게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競爭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이 競爭意識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北(김형진):아, 그럼요.

南(張忠植):이 會談은 成果를 얻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民族에게 무엇인가 90年代에는 커다란 膳物을 안겨드려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北(김형진):예. 그래서 나는 오늘 會談場에 나오면서 우리 동무들도 아까 얘기있었는데 상당히 기분들이 아주 感傷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會談 自體를 놓고보면 6次會談을 통해서 일정한 마무리를 지을 土臺를 마련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 體育으로 비유해 말하면, 蹴球로 말하면 90分동안 競技에서 이제 得點을 내고 마지막 몇분을 남긴 최후경기 같은 순간이고 또 마라손으로 말하면 아 힘든 105里를 달

려서 단연 앞장서서 이제 경기장 400 m 코스에 들어서서 결승점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러한 時期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일곱차례, 그 다음에 實務代表接觸 다섯차례 했죠? 이 過程을 통해서 오랜 期間 서로 사실 고진감래라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많은 전에 없던 이런 成果들도 마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 우리가 진심으로 單一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意志를 갖고 民族의 뜻을 雙方이 다 이것을 誠心誠意껏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方向이 좀 다르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김형진) : 아, 이거 張先生님 언제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되면야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 뭐 곧 끝나는거야 이제 그런 意志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인차 할 수 있습니다.

南(張忠植) : 지난날의 다른 會談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誠實하고 그리고 서로를 尊重하고 民族에게 꼭 成果있는 會談의 結果를 報告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使命意識에서 일탈이 안 된다고 하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사람의 會談代表뿐만 아니라 이 會談을 支援해 주는 雙方의 體育會 계시는 분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것은 꼭 成事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立場에서 서로 좀 이렇게 意見이 다르더라도 서로 感情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40年 동안이나 分斷되다 보니까 나는 이따금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요. 더러 한 두마디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거든요.

北(김형진) : 그래서 理解가 잘 안되는 것 있나요?

南(張忠植):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같은 民族이고 같은 言語를 쓰면서도 또 分斷이 가져오는 하나의 이러한 副作用이 슬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理解하는 立場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相對方의 意見을 尊重하는 立場에서 會談을 이끌어가면 좋지 않겠나.

또 한가지는 아까 그 感傷에 젖으신다고 하는데 아 이거 會談 우리 끝나고서 내가 金團長님하고 우리 집에가서 소주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야 좋을텐데 또 나도 金團長이 平壤에 가서 會談 끝나고 초대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같은 民族끼리 오고가는 것을 생각할 때

北(김형진): 張先生님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6次會談을 끝내면서 이제 張先生님이랑 헛수로 말하면 1年 우리가 舊面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6次 會談을 끝내고 가면 서 이제 貴側 先生들하고 서울에서 첫 會議를 하면 張先生님 집도 가보고 또 두번째 우리 平壤에서 하면 우리 집도 가보고 이런 생각에 아주 젖어 있었는데 이제 張先生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나도 같은 感情인데 그런데 6次會談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4次, 5次 實務會談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잘 안 될것 같다」하는 이런 感도 없지 않습니다.

또 이제 張先生님 그런 의도로 모든 代表들이 다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4,5次때 實務代表接觸과 같이 그렇게 空轉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거야 지나간 거고 實務代表接觸에서 아마 우리 代表들이 자기 任務를 遂行하지 못 한것 같은데 오늘이 1月18日입죠?

南(張忠植): 예, 맞습니다.

北(김형진) : 1月18日, 7次會談이야 아 이제 署名하는 것으로 世上에 소문을 굉장히 냈습니다. 6次때 우리가 서로 合意하고 이래서 7次會談때는 合意書에 署名을 해서 世上에 宣布하자. 여기 記者先生님들도 다 게시고 한데 소문은 벌써 난건데 그래서 張先生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意志를 가지고 나오셨다니까 오늘 잘 될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 우리가 不信의 골이 너무 깊었던 탓으로 서로 理解하는 마음들이 不足한 것도 같고 그래서 지난 4次, 5次 實務會談때도 피차가 너무 感情을 앞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立場에서도 充分한 그러한 理由가 있었고 또 貴側에서도 充分한 理由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농담 한마디 하겠어요. 金團長이 귀가 크거든요. 아주 귀가 크요. 귀가 큰 사람은 남의 뜻을 많이 尊重하는 그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北(김형진)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글썄 張先生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뭐 誤解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쩐지 지금 전번에 實務會談들 놓고 보면 뜻을 理解못한 것이 아니라 뜻이야 明白합죠. 우리야 같은 民族이 같은 言語를 쓰는데 뜻을 理解못할 거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理解하는 거고 우리가 問題는 唯一팀을 하루빨리 成事시키자 이런 연설만 하지 말고 실질 우리 會談에서 合意點을 모아가고 共通點을 찾는데서 實踐으로 具現돼야 된다. 이런 각오만 가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 지난 봄에 우리가 會談을 出發해서 그동안에 좀 공백도 있었습디만 막판에 와서 잘 달음박질했어요.

그런데 問題는 과연 이것이 合意되어 가지고 정말 誠實하게 合意된 事

項이 履行되겠느냐. 이것 또 우리 體育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 날에 南北間에 서로 約束들 하고 지키지 않는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우리들의 責任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마는 어쨌든 過去の 南北間의 會談들이 合意해 놓고 實行안되는 이러한 不信의 골이 깊다 보니까 좀더 이번에는 南北이 北京아시아에 參加하는 單一팀을 만드는 것은 정말 바깥과 거죽이 다 잘 돼야 되겠다. 合意는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엉뚱한 問題 가지고 서로 舌戰이 벌어져 가지고 雙方間 서로 상처만 남겨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次, 5次 實務接觸은 그러한 뜻들이 反映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充分히 理解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작년에도 노파심이 좀 계셨는데 새해에는 좀 털어버린 줄 알았는데 노파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 시기 會談에서야 언제 合意를 오늘처럼 보고 이렇게 한적이 있었나요? 뭐 없었죠.

南(張忠植) : 물론 전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참 發展을 했죠.

北(김형진) :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새 意志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會談을 시작해 봅시다.

南(張忠植) : 그러죠.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그러면 場內를 좀 整理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간 任代表先生 重責을 맡고 많이 활약하셨습니다.

南(任台淳) : 그간 實務代表接觸에서 좋은 膳物을 이번 會談에서 못 내놓게 되어서 …….

北(김형진) : 아, 그러게 말입니다. 任先生은 누구보다도 會談 經驗이 누구보다도 아주 많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요.

南(任台淳) :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實務代表接觸이 結實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過程을 통해서 서로의 立場을 確認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意味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北(김형진) : 曹先生님도 작년에 우리가 3學年에 편입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있는 데서도 最優等生 같습니다. 實務代表接觸의 과정을 즉 보면.

南(朴秀蒼) : 越班했어요, 越班.

張先生님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北(장 웅) : 오늘 날씨?

南(任台淳) : 날씨가 찌부등한데.

南(朴秀蒼) : 화창하게 합시다. 오늘 화창하게.

北(장 웅) : 朴先生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좋은 소식 있는 모양이다.

北(김형진) : 좋은 소식 있어야죠. 이거 새해 첫 會談인데.

南(任台淳) : 張先生도 5次接觸 끝내고 돌아가서 心氣가 편치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北(장 웅) : 뭐 잘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는 決勝線 가슴을 덜라 말라 하는데서 맥히니까 나아 꼭 되어 되겠다는 確信을 가지고 지금 參加하고 있는데 오늘은 任先生 잘 좀 해 봅시다.

南(任台淳) : 오늘이야 마무리 단계 아십니까? 마무리 잘 해야죠.

南(朴秀蒼) : 하여튼 그 좋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北(김형진) : 任先生님, 實務代表接觸때 많이 웃었습니까?

南(任台淳) : 뭐 웃기도 하고 쩡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北(김형진) : 웃어야죠.

南(張忠植) : 어떻게 오늘 金團長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北(김형진) : 예. 그럼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北側 基本發言>

남측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체육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제 7차 본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에 막을 올린 우리 회담에서는 다소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우리측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 말에 이르러 유일팀의 탄생을 눈앞에 내다볼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온 겨레와 모든 체육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번에야말로 60년대와 70년에 성사되지 못한 유일팀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12월 22일에 열렸던 제 6차 회담에서 유일팀 구성방안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미결로 남아있던 몇가지 문제

들이 완전히 타결됨으로써 유일팀 구성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팀 구성을 위한 10개항의 기본방안이 합의되고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마저 합의된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문안을 정리해서 제 7차 본회담 때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유일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자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과 15일에 진행된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난관과 장애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오늘 이 본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6차회담때에 쌍방은 1월 10일에 가지게 될 제 4차 실무대표접촉에서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합의서에 대한 문안정리를 끝내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 문제를 협의·결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쌍방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는 제 4차 실무접촉때에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며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담보하기 위한 보장장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었지만 그에 대해서도 좋게 합의하려고 하였습니다.

4차 실무대표접촉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면 오늘의 제 7차 본회담에서는 완성된 합의서에 자랑스럽게 서명하고 유일팀의 탄생을 내외에 소리높이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변을 안아올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4차 실무대표접촉에서는 귀측이 유일팀 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논의할 성격도 못되는 엉뚱한 문제들과 쌍방이 공동위원회에서 토의
· 결정하기로 합의를 본 문제들을 37개항 썩이나 새롭게 들고나와 토의하
자고 억지주장을 함으로써 회담 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 거래와 체육인들이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는 유일팀을 하루라
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회담에서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에 모든 것
을 북중시키고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들은 일체 거론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쌍방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름아닌 11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지난 제4차 실무접촉 때에 들고나온 친선교환경기 문제
와 시설답사반 교환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은 애당초 유일팀을 위한
이 회담에서 논의할 대상도 안되는 문제들입니다.

귀측은 친선교환경기와 시설답사반 교환이 유일팀 구성의 분위기를 조성
하고 유일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이전에 선행시
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리와 리치에 맞지 않는 껌꾸로 된 논리이
며 생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일팀 구성의 분위기는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유일팀에 대한 의지는 쌍방 올림픽위원회와 쌍방
당국의 보증으로써 충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쌍방 합의사항도 일방적으로 뒤집어 엮음으로써 회
담앞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지난 제4차 실무접촉에서 내놓은 부칙이라는 것을 보면 교통수

단 보장과 통로에 관한 문제, 경기장소 선정문제, 경기관람을 위한 참관단 문제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대해 말한다면 그러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미 쌍방사이에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무엇 때문에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류념하면서 문안정리만 하면 완전히 낙착지을 수 있는 10개항의 기본방안 합의를 거부하면서 자기소관도 아닌 문제들을 수십가지 썩이나 들고나와 한사코 토의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내용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그것을 서명해야할 마지막 시기에 와서 회담 앞에 복잡성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어제는 합의해 놓고 오늘은 그것을 뒤집어 엮는 귀측의 행동을 놓고 그것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을 놓고 보아도 귀측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부칙이라는 것을 체육회담을 공전시키고 유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실무접촉 때에 귀측이 5차 실무접촉에 나와서는 그것을 철회하고 본회담의 위임사항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5차 실무접촉에 나와서도 의연히 자기 부당한 립장과 태도를 고치지 않았으며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론거들을 되풀이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결과·한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하여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문안정리는 두 차례의 접촉을 통해서도 타결짓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

늘 제 7 차 본회담에서도 유일팀 기본방안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에서 취한 남측 대표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고 귀측이 말로는 유일팀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이 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유일팀 구성을 유산시키려 한다는 것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이 조금이라도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회담앞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한데 대해 책임을 심각히 느끼고 자기 부당한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10 개항 유일팀 구성방안과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이 합의되었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문제도 쌍방간에 견해일치를 본 지금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그 어떤 리유에 의해서도 유일팀 구성을 유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유일팀을 구성하여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출전하는 것은 온 겨레와 체육인들이 우리 쌍방 대표들에게 부여한 중대한 과업이며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시대와 역사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이 영예로운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으며 또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진정으로 하나의 띠줄을 나누는 동족끼리 서로 승부를 가르고 우열을 겨루며 대결하기를 바라지 않는 조선의 체육인이라면 시대와 력사 그리고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80년대도 아니고 통일의 대망이 실현될 90년대의 첫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각에 우리는 유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의 대문을 여는 데서 합당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유일팀 구성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유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쌍방이 합의사항을 존중히 하고 충실히 리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뒤집어 얹으며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비록 두차례의 실무접촉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오늘 회담에서는 유일팀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들을 제거하고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유일팀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첫째로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의 문안정리를 끝내고 그에 서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회담들에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주장한 바와같이 10개항의 방안은 유일팀의 명칭으로부터 훈련과 선수선발문제, 선수단 구성과 공동위원회 조직·운영문제 또 비용, 신변안전 담보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일팀 구성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방안 합의서입니다.

지금 10개항의 방안에서 남은 문제는 오직 합의서 문안을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여러차례 씩이나 쌍방의 안을 각각 읽고 대조하면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문안정리를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측에서도 루루이 강조하고 긍정적인 바가 있습

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담에서는 다른 문제보다 10개항의 기본방안 합의서에 대한 문안정리를 우선적으로 끝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접촉에서는 둘째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차회담때 귀측이 내놓은 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측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데 대해 귀측은 『연구도 하지 않고 동의했다느니, 동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해 불손하게 걸고들고 있었으나 그것이 유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표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귀측은 우리의 성의를 이러저러하게 시비하기 전에 귀측이 내놓고 우리가 받아들여 합의를 본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을 20여개 항목씩이나 또 새롭게 수정한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합의한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보장장치문제 토의를 결속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쌍방 올림픽위원회가 보증하고 그를 쌍방 총리들이 담보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접촉때에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합의서 안과 쌍방 총리들의 각서 안을 귀측에 넘겨주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오늘 중으로 이 문제 역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담에서 이상의 세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아무런 장애없

이 유일팀이 성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 11차 아세아경기대회가 하루하루 눈앞에 박두해 오고 있고 유일팀 구성도 성사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온 겨레와 체육인들은 우리 쌍방 대표들이 오늘 회담을 잘 해서 유일팀을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안정리를 끝내고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온 겨레에 유일팀이 무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南(장충식) :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 4차, 5차 실무접촉때의 우리들의 진의를 曲解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측의 立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側 첫 發言〉

김형진 團長,

그리고 北側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11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 단일팀 構成·參加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제 7차 南北體育會談을 開催하게 됩니다.

나는 待望의 90年代를 맞이하여 南北體育會談 代表들이 첫 本會談을 갖게 되는 이 자리에서 각별한 感懷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雙方은 그동안 여섯차례의 本會談과 다섯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통하여 南北體育會談史上 전례가 없는 進展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雙方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 6차회담에서 제 11회 北京아시아競

技大會 단일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10個項의 基本事項과 單一팀 共同 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에 대하여 基本的으로 意見一致를 보았으며, 이와 아울러 合意事項의 履行保障裝置를 마련하자는데 대해서도 意見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단일팀의 成事を 苦待하는 7천만 온 겨레에게 커다란 希望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6 차 회담에서의 合意에 따라 금년초에 進行된 두차례의 實務代表接觸에서는 비록 雙方間에 見解差異가 있기는 했으나 서로의 立場을 충분히 開陳할 수 있는 機會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우리의 會談은 이제 마지막 段階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段階에서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기울여 온 努力들이 모래위의 城으로 되고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雙方 代表들은 이 作業을 튼튼히 하기 위해 혼신의 努力과 모든 誠意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제 6 차 회담에서 우리 會談의 마무리 作業의 일환으로 단일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 問題를 貴側에 提起하였습니다.

雙方間에 단일팀 構成·參加에 合意를 이룩하고 이를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가기 위해서는 合意事項의 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확실한 附帶措置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眞實로 단일팀을 成事시켜 알찬 結實을 거두려 한다면 이같은 附帶措置는 어느 한쪽의 要求에 의해서가 아니라 相互 尊重과 호양의 精神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見地에서 나는 제 6 차회담에서 雙方 合意事項의 履行保障裝置로서 10 개항 合意內容의 用語解釋, 단일팀 構成·參加推進日程의 遵守, 體育外的問題와의 連繫排除,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 등에 대해 雙方이 合意하고 이를 雙方當局이 保證하는 것이 좋은 方案이 될 것이라는 立場을 밝혔던 것입니다.

貴側도 이같은 우리側 提議의 취지에 同意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問題를 討議하겠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側은 제 6 차회담의 結果에 따라 지난 제 4 차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方案의 內容이 包含된 제 11 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 단일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을 貴側에 提示하였습니다.

우리측 合意書(案)은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이 會談의 經過와 合意書의 基本趣旨를 밝힌 前文과 단일팀 構成·參加關聯 10 個項 基本事項, 그리고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合意書의 發效日字 등에 대한 內容이 明示된 것이었습니다.

貴側도 이 가운데 合意書의 前文과 發效日字에 대해 우리측과 意見을 같이 했으며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을 위한 雙方當局의 覺書交換에 대해서도 同意를 表示했습니다.

나는 以上과 같은 우리의 會談結果를 놓고 볼 때 合意事項의 履行保障裝置 마련에 雙方이 좀더 努力을 기울인다면 이 會談의 成功的 妥結을 내다볼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會談에서 그간의 會談結果를 土臺로 우리측이 새로이 調整한 제 11 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 단일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을 貴側에 提示하고자 합니다.

우리측 合意書(案)은 지난 제 4, 5 차 實務代表接觸에서의 貴側主張에 대해서도 신중한 檢討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

大韓民國 올림픽위원회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위원회는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1989년 3월 9일 第 1 次會談을 가진이래 ()차례의 本會談과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졌다.

雙方은 民族和合과 스포츠精神에 입각하여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함으로써 南北體育人들의 圓合된 모습과 俊秀한 기량을 內外에 떨치고 體育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증진하여 平和統一을 촉진하는 契機가 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은 事項에 合意하였다.

1. 選手團 呼稱

가. 우리말로 「코리아」로, 英語로는 「KOREA」(略字: KOR)로 하며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하되 「高麗」로는 表記하지 않는다.

나. 中國語로는 「可禮亞」로 表記하도록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提議한다.

2. 選手團 團旗

가.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地圖를 그려넣는 것으로 한다.

나. 地圖에는 韓半島와 濟州島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省略하기로 한다.

3. 選手團 團歌

1920 年代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選手選拔

가.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참가할 選手들은 選拔戰을 통하여 選拔한다.

나.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단계에서 雙方이 合意하는 일정한 場所·時間·審判 및 競技規則에 따라 南北選手間에 公開的으로 실시한다.

다. 選拔戰은 각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 회이상 實施한다.

라. 選拔戰은 각 種目別로 特性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實施한다.

(1) 記錄種目

(가) 記錄種目は 陸上, 競泳, 力道, 洋弓, 射擊, 사이클, 漕艇, 카누, 요트, 골프 등 10 개 種目으로 한다.

(나) 記錄種目は 選拔戰의 記錄을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 기간중의 評價記錄도 고려한다.

(다) 사이클, 漕艇, 카누, 요트의 團體競技에 있어서는 팀웍이 크게

要求되는 점을 勘案하여 選拔戰에서 勝利한 팀을 選拔한다.

(2) 採點種目

(가) 採點種目は 體操, 다이빙, 우슈 등 3개 種目으로 한다.

(나) 採點種目は 선발전의 點數를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合同訓練 기간중의 評價點數도 고려한다.

(3) 鬪技種目

(가) 鬪技種目は 복싱, 柔道, 레슬링, 펜싱, 카바디 등 5개 種目으로 한다.

(나) 복싱, 柔道, 레슬링의 경우에는 選拔戰을 실시하여 優勝한 選手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合同訓練 기간중의 評價內容과 國際大會의 戰績도 고려한다.

(다) 펜싱의 경우에는 劍別로 리그전 形式의 선발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선발한다.

(라) 카바디의 경우에는 球技種目中 蹴球, 籠球 등의 例에 따른다.

(4) 球技種目

(가) 球技種目は 蹴球, 籠球, 排球, 卓球, 水球,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테니스, 배드민턴, 軟式庭球, 野球 등 13個 種目으로 한다.

(나) 蹴球, 籠球, 排球, 水球,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野球의 경우에는 팀웍이 크게 要求되는 점을 감안하여 選拔戰에서 먼저 2勝을 거둔 팀을 위주로 하여 選拔하되, 진팀의 優秀選手도 일부 包含되도록 한다.

(다) 卓球, 테니스, 배드민턴, 軟式庭球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그전 形

式的 選拔戰을 실시하여 勝率順으로 선발한다.

마.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的 選手가 없거나 적합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측에서 選拔한다.

바. 選手選拔의 구체적 方法, 選拔前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 選定 등 기타 세부적인 事項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協議·決定한다.

5. 選手訓練

가. 訓練은 合同訓練과 強化訓練으로 구분하여 進行한다.

나. 合同訓練에 참가할 選手 및 任員은 각기 決定하며 그 人員數는 第 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競技參加 定員數 정도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할 수 있다.

다. 合同訓練은 雙方 監督 및 코치가 合意하여 實施하되, 상대방의 고유한 訓練方法을 존중한다.

라. 合同訓練 기간중 參加選手는 交替할 수 있다.

마. 合同訓練은 「單一팀 共同委員會」가 發足된 후 1개월 이내에 始作한다.

바. 強化訓練은 選手團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參加時까지 實施한다.

사. 合同訓練 및 強化訓練은 種目別로 南北을 相互 往來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제 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아. 訓練과 관련한 모든 便宜는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측에서 保障한다.

자. 訓練에 관한 기타 細部事項은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에서 協議·決定한다.

6. 選手團 構成

- 가. 第 11 回 아시아競技大會에 참가할 選手團의 구성은 豫備申請 마감 일인 1990년 6월 22일 前으로 끝낸다.
- 나. 選手 및 任員構成은 OCA 憲章, 해당 國際 및 아시아競技聯盟 規則과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의 關係規定에 따른다.
- 다. 團長은 선발된 選手의 數가 많은 측에서 맡고, 副團長은 選手의 數가 적은 측에서 맡는다.
- 라.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선발된 選手의 數가 많은 측이 監督을, 적은 측이 코치를 맡는다.
- 마.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바. 大會에 참가할 選手團은 가능한 한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

7. 選手團 經費

- 가. 選手團 參加에 따른 經費는 選手 및 任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南北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나. 南北往來를 통한 選拔戰 및 訓練 등에 따르는 經費는 招請側에서 負擔한다.
- 다. 外國轉地訓練 및 外國選手團 招請競技에 따르는 經費는 南北이 協議하여 決定한다.

8. 選手團 및 關係人員들의 身邊安全保障

訓練에 參加하는 選手들과 그 關係人員들에 대한 身邊安全은 南과 北의 關係當局이 「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하는 方法으로 保障한다.

9.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가. 雙方은 單一팀 構成 및 參加問題에 관한 事項을 구체적으로 協議·推進하기 위하여 「單一팀 共同委員會」(이하 「共同委員會」라 함)를 構成·運營한다.

나.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構成한다.

다. 「共同委員會」는 雙方 올림픽委員會 및 競技團體 代表로서 각 10명內外로 構成하며, 南北 각기 1명씩의 共同委員長을 둔다.

라. 「共同委員會」會議는 매월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1회이상 개최한다.

마. 「共同委員會」는 다음 사항을 協議·決定한다.

-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 (2)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 (3) 「아타세」選定에 관한 事項
- (4) 大會開催 기간중 競技進行 및 運營에 관련하여 열리는 각종 會議參加 및 大會同伴審判 選定에 관한 事項
- (5) 選手團 構成·參加와 관련된 選手 및 關係人員의 南北往來와 관련한 事項
- (6) 選手團 團服 및 參加에 따른 裝備에 관한 事項
- (7) 기타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事項

바. 「共同委員會」는 選手團 構成이 完了되고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を 제출한 이후에는 選手團 參加와 관련한 同大會 組織委員會와의 각종연락 등 對外的 기능을 遂行한다.

사. 「共同委員會」아래에 「共同事務局」을 다음과 같이 構成·運營한다.

(1) 共同事務局은 다음과 같은 機能을 遂行한다.

(가) 共同委員會의 決定事項 집행

(나) 共同委員會의 會議召集, 運營, 記錄 등과 관련한 事項

(다) 단일팀 構成·參加와 관련된 人員의 南北往來에 따른 支援 및 連絡事項

(라) 기타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行政事項

(2) 共同事務局은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며 각각 1명씩의 共同事務局 長을 둔다.

(3) 雙方은 適正數의 人員을 共同事務局에 各各 派遣·常駐시킨다.

(4) 共同事務局間에는 直通電話를 架設·運用한다.

아.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의 構成·運營에 관한 具體的 事項은 雙方이 協議하여 別途로 定한다.

10. 其 他

單一팀과 關聯한 其他 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다.

附 則

1. 本 合意書 9項 아目에서 定한 바에 따라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別途로 作成한다.(附屬合意書 1)

2. 本 合意書의 10個項 內容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는 別途로 作成한다.(附屬合意書 2)

3. 雙方은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參加할 것을 原則的으로 合意한 사실과 單一팀 參加가 不可能하게 될 경우 個別參加하기로 하였다는 內容 등이 包含된 雙方 NOC 委員長 共同名義의 서한을 本 合意書 效力發生日로부터 15 일이내에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發送한다.(附屬合意書 3)

4. 雙方은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推進日程을 준수한다.

가.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은 1990년 2월 15日까지 設置 完了한다.

나. 南北往來 合同訓練은 1990年 3월 15日 以前에 始作하여 1990年 4월 15日 以前에 終了한다.

다. 選手選拔戰은 1990年 4월 20日에 始作하여 1990年 5월 30日 以前에 終了한다.

라. 選手團은 1990年 6월 15日 以前에 構成 完了한다.

마. 參加申請書는 1990年 6월 22日 以前에 提出한다.

5. 雙方은 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實效를 保障하는 措置로서 雙方當局의 保障覺書 文本을 合意書 署名과 동시에 交換하며 이를 雙方當局이 各其 發表한다.

6. 以上과 같은 諸般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아니할 경우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일체의 合意는 無效가 된다.

7. 本 合意書는 1990年 2月 1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1990年 1月 日 板 門 店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해

南北體育會談

首席代表 張 忠 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해

南北體育會談

團 長 김 형 진

< 附屬合意書 1 >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雙方은 第 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코리아選手團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 第 9項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規定에 依據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 한다) 및 「코리아選手團 共同事務局」(以下 「共同事務局」이라 한다)의 構成・運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共同委員會

가. 機能

(1) 共同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가)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 ① 種目別 訓練 參加人員數(選手, 監督 및 코치)에 관한 事項
- ② 種目別 選手訓練(合同訓練 및 強化訓練) 및 選手選拔戰의 日程 및 場所에 관한 事項
- ③ 種目別 選手選拔戰의 具體的 方法,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및 審判選定에 관한 事項
- ④ 選手訓練 및 選拔戰 때의 輸送, 宿食, 醫療, 通信 등 諸般 便宜事項
- ⑤ 選手訓練 및 選拔戰 때의 行政, 醫療 및 技術要員 등 支援 人員에 관한 事項
- ⑥ 選手訓練 및 選拔戰 때의 參觀團 및 記者團 交換에 관한 事項
- ⑦ 選手訓練 및 選拔戰 때의 選手團 및 關係者의 活動保障에 관한 事項

(나)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 ① 選手團長, 副團長, 種目別 選手 및 任員(監督, 코치) 選定에 관한 事項
- ② 行政要員(總務, 渉外, 公報 등), 醫療要員(醫師, 看護士, 안마사 등), 技術要員(보우트맨, 펜싱, 정비공, 총기 정비공, 자전거 기능공, 수송요원, 요리사, 피아니스트 등) 選定에 관한 事項
- ③ 參加申請書 提出에 관한 事項
- ④ 參加申請書 提出 後 選手團의 問題發生時 解決方案 講究에 관한 事項

- ⑤ 選手團 結團式 및 解團式의 時期·場所 및 具體的 方法에 관한 事項
- ⑥ 選手團 出發 및 歸還과 관련된 輸送 및 經路 등에 관한 事項
 - (다) 「아타세」選定에 관한 事項
 - (라) 大會 開催期間中 競技進行 및 運營과 關聯하여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 및 大會同伴審判 選定에 관한 事項
 - (마) 選手團 構成·參加와 關聯된 選手 및 關係人員의 南北往來와 關聯한 事項
 - (바) 選手團 團服 및 參加에 必要한 裝備에 관한 事項
 - (사) 其他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 事項
- (2)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選手團 構成이 完了되고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를 提出한 以後에는 選手團 參加와 關聯한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의 各種 連絡 등 對外的 機能을 遂行한다.
- (3) 共同委員會는 對外的 機能과 關聯하여 雙方 올림픽委員會가 北京 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國際體育機構 및 다른 國家올림픽委員會와 갖는 接觸 또는 連絡 등의 固有한 權限에 關與할 수 없다.

나. 構成

- (1) 共同委員會는 雙方 各其 共同委員長 1名, 幹事委員 1名, 委員 8名으로 構成한다.
- (2) 共同委員長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級으로 하며, 幹事委員을 包含한 委員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 및 競技團體 代表로 한다.

- (3) 雙方은 共同委員會 委員名單을 本 合意書의 效力發生日로부터 7 日 以內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 (4) 共同委員會 委員은 事情에 따라 交替할 수 있다.
- (5) 共同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各其 3名의 委員으로 構成되는 運營委員會를 두며 雙方 幹事委員이 委員長을 맡는다.
- (6) 共同委員會 傘下의 記錄種目, 採點種目, 鬪技種目, 球技種目別로 選手選拔 및 訓練問題를 擔當하는 專門委員會를 둔다.
 - (가) 專門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必要한 人員으로 構成한다.
 - (나) 專門委員會 委員長은 雙方 共同委員長이 共同委員會 委員 中에서 各各 1名씩 指名하고 委員은 雙方이 該當分野 專門家를 各其 選定한다.
- (7) 共同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諸般 行政 및 連絡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위해 서울·平壤에 共同事務局을 設置한다.

다. 運 營

- (1) 共同委員會는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대한 合意書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5日 以內에 構成, 業務를 始作하며 大會終了 後 雙方 間에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된 諸般事項이 終了될 때까지 存續한다.
- (2) 共同委員會 會議는 서울·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며, 첫 會議는 平壤에서, 次期 會議는 첫會議 開催後 15日 以內에 서울에서 開催한다.
- (3) 共同委員會의 定期會議는 每月 2回 以上 가지며 어느 一方이 要請하면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 (4)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合意方式은 南北 雙方 合意制로 한다.
- (5) 雙方은 合意에 따라 關係 專門家와 共同事務局 人員을 會議에 陪席시킬 수 있다.
- (6) 共同委員會 開催에 따른 제한 便宜(輸送, 宿食, 醫療, 通信 등)는 會議 主催側에서 提供한다.
- (7) 雙方 合意內容은 各其 2통씩 文書로 作成하며, 雙方 共同委員長이 署名한 文書を 1통씩 交換한다.
- (8) 會議結果의 報道는 各其 便利한대로 하며 雙方 合意가 있을 境遇 合意內容을 共同으로 作成하여 發表한다.

라. 雙方은 共同委員會 會議 參加에 따른 30名 内外의 隨行員과 50名 内外의 記者團을 帶同하며 會議期間中 自由로운 取材活動을 保障한다.

마.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問題의 協議·解決과 그 實行의 實效性을 保障하기 위해 相對側의 內政, 法律制度, 軍事訓練 등 一切의 體育外的 問題를 舉論하지 않는다.

바. 共同委員會는 選手訓練(合同訓練 및 強化訓練)과 選拔戰 등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한 體育分野에서의 南北間 人的往來와 連絡을 위해 通行·通信에 관한 合意書를 採擇하고 雙方 當局이 保障하는 覺書를 交換한다.

2. 共同事務局

가. 機能

共同事務局은 다음의 事項을 執行한다.

- (1) 共同委員會의 決定事項
- (2) 共同委員會의 會議召集・運營・記錄 등과 關聯한 事項
- (3)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된 人員의 南北往來 및 滯留에 따른 諸般 支援 및 連絡事項
- (4) 其他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한 諸般 行政事項

나. 構 成

- (1) 共同事務局은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며 事務室은 相互 便利한 場所에 둔다.
- (2) 共同事務局은 雙方 各其 局長 1名, 副局長 2名 및 關係人員 40名으로 構成하며, 雙方은 그중에서 相對側 共同事務局에 副局長 1名(團長)과 連絡人員 20名을 派遣・常駐시킨다.
- (3) 雙方은 相對側 共同事務局에 常駐할 連絡人員의 名單을 本 合意書 效力發生日로부터 7日 以內에 通報한다.
- (4) 雙方은 事情에 따라 連絡人員을 交替할 수 있다.
- (5) 共同事務局長은 共同委員會 委員中 雙方 幹事委員이 檢임토록 한다.

다. 運 營

- (1) 共同事務局은 共同委員會의 發足과 同時에 業務를 始作하며 共同委員會가 解體될 때까지 存續한다.
- (2) 共同委員會의 運營 및 選手選拔・訓練・其他 行政事項을 圓滑히 處理하기 위하여 既 設置되어 있는 南北直通電話 回線과는 別途로 直通電話 10回線을 共同事務局間에 設置・運用한다.

라. 雙方은 共同事務局에 勤務하는 相對側 連絡人員에 대하여 交通・宿食・

通信・醫療・換錢 등 業務遂行에 必要한 諸般便宜를 最大限 提供하며 그 人員의 地位에 관하여는 1961年 4月 18日字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中 外交官의 地位를 準用한다.

附 則

1.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하여 本 合意書에 明示된 機能 以外의 어떠한 政治的 活動도 할 수 없다.
2.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하여 本 合意書에 包含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 해서는 雙方이 合意하여 定한다.

1990年 1月 日 板 門 店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首席代表 張 忠 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團 長 김 형 진

< 附屬合意書 2 >

10 個項 內容의 用語解釋에 관한 合意書

第 11 回 北京 아시 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 10

個項 內容의 用語解釋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1. 第1項 “나”目的 “提議한다”함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側 이 雙方이 合意한 單一팀 呼稱 中國語 表記를 採擇・使用하도록 共同으로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2. 第4項 “나”目的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서 公開的으로 實施한다”함은 合同訓練이 終了된 後에 自己側 觀衆과 相對側 參觀團이 競技를 自由롭게 觀覽하고 自己側 地域과 相對側 地域에서 열리는 競技를 라디오 및 TV로 中繼하며 相對側의 라디오 및 TV 中繼를 保障하는 등 競技觀覽과 取材 및 報道가 自由로운 가운데 選拔戰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選拔戰 때 南北을 往來하는 人員의 規模는 選手・任員의 경우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고, 支援人員 및 記者團은 各各 100名 內外, 參觀團은 500名에서 2,000名 規模로 한다.
3. 第4項 “다”目的 “서울・平壤 등 南北의 地域”이라 함은 서울과 平壤 以外的 다른 都市도 包含됨을 말한다.
4. 第4項 “라”目中 (1) 記錄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記錄도 考慮한다”, (2) 採點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點數도 考慮한다” 및 (3) 鬪技種目 (나)의 “合同訓練期間中の 評價內容도 考慮한다”함은 合同訓練期間中에는 뛰어난 實力을 發揮하던 選手가 選拔戰에서 不振한 成績을 거두었을 경우에 雙方 監督・코치間的 合意로 同 選手를 包含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5. 第4項 “라”目中 (3) 鬪技種目 (나)의 “國際大會”라 함은 1988年 올림픽競技大會와 1988年・89년에 열린 아시아 및 世界選手權大會를 말한다.
6. 第4項 “라”目中 (4) 球技種目 (나)의 “一部”라 함은 雙方的 競技力을 考慮하여 種目別 參加定員의 最小 2割 乃至 最大 4割 範圍內에서 合意한 人員數를 말한다.
7. 第5項 “다”目中 “相對方의 固有한 訓練方法을 尊重한다”함은 技術的 事項은 물론, 服裝着用 및 訓練裝備 使用에 대하여는 各其 便宜에 따름을 말한다.
8. 第5項 “사”目中 “合同訓練 및 強化訓練은 種目別로 南北을 相互往來하면서 實施한다”함은 一方地域에서 15日間씩 兩側 地域을 번갈아 가며 實施함을 말하며, 이경우 南北을 往來하는 選手 및 任員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고, 支援人員 및 記者團은 各各 50名 內外로 한다.
9. 第6項 “다”目的 團長은 選手團을 指揮・監督하고 總監督 任命 등 選手團을 管理함에 있어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10. 第6項 “바”目的 “可能的 限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함은 單一팀 選手團에서 어느 一方이 차지하는 比率이 7割을 超過하지 않도록 함을 말한다.
11. 第9項 “나”目的 “合意가 이루어진 後”라 함은 雙方 合意內容

의 效力發生日 以後를 말한다.

12. 第9項 “라” 目的 “번갈아 1回 以上 開催한다” 함은 共同委員會 會議을 서울과 平壤에서 輪番制로 開催하되 各其 地域에서 月 1回 以上 開催하는 것을 말한다.

13. 其他 合意書 內容의 解釋과 關聯하여 南北 雙方間에 異見이 있을 경우 共同委員會의 協議・決定에 따른다.

1990年 1月 日 板 門 店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首席代表 張 忠 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團 長 김 형 진

< 附屬合意書 3 >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

雙方은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하여 大會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書翰을 보내기로 合意하였다.

〈合 意 書 翰〉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委員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委員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는 第11회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問題를 論議하기 위하여 南北體育人間에 차례의 本會談과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진 結果 1990年 月 日 單一팀 構成・參加에 原則的인 合意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選手訓練과 選拔戰 開催 및 選手團 등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諸般問題 解決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雙方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事情으로 인하여 單一팀 構成・參加가 어렵게 될 境遇에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OCA會員 資格으로 個別 參加하기로 合意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一般 엔트리를 提出하기 前까지는 貴 組織委員會와의 連絡・接觸 등 雙方 올림픽委員會의 固有한 對外的 機能은 그대로 存續하게 되며, 同 엔트리를 提出하고 난 以後에는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가 貴 組織委員會와의 連絡・接觸 등의 機能을 맡게 될 것입니다.

南北單一팀의 呼稱과 關聯하여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英語로는 KO-REA (略字: KOR)로 하며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하되 「高麗」로는 表記하지 않으며, 中國語로는 可禮亞로 表記하도록 合意하였는바, 貴 委員會가 위의 表記를 採擇・使用하여 줄 것을 正式으로 要請합니다.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이 機會를 빌어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가 成功的으로 開催되기를 祈願합니다.

1990 年 月 日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金鍾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김유순

〈 合 意 書 翰 〉

아시아올림픽評議會 會長 貴下

大韓民國 올림픽委員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는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問題를 論
議하기 위하여 南北體育人間에 차례의 本會談과 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
진 結果 1990 年 月 日 單一팀 構成・參加에 原則的인 合意를 본바
있습니다.

또한 單一팀 呼稱은 英語로 KOREA (略字 : KOR) 로 表記하기로 合
意하였습니다.

앞으로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選手訓練과 選拔戰 開催 및 選手團 構
成등 單一팀 參加에 따르는 諸般問題 解決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
입니다.

다만 雙方的 努力에도 不拘하고 불가피한 事情으로 單一팀 構成・
參加가 어렵게 될 境遇에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OCA 會員 資格으로

個別 參加하기로 合意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貴 評議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1990年 月 日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金鍾烈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김유순

1990年 1月 日 板 門 店

大 韓 民 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の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首席代表 張 忠 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委員長の
委任에 의하여

南北體育會談

團 長 김 형 진

나는 以上으로 우리側 合意書(案)의 內容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貴側의 理解를 돕기 위해 우리측 合意書(案)에 提示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해 좀더 說明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民族和合과 스포츠精神에 立脚하여 제 11회 北京아시

아競技大會에 南北이 단일팀을 構成하여 參加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雙方이 10개항 基本事項과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 方案에 기본적으로 意見一致를 본 土臺위에서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확실한 保障裝置를 마련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으로서는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雙方間에 意見一致를 본 內容들과 함께 최소한 다음 事項에 대해서 合意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雙方은 단일팀 構成・參加를 순조롭게 推進하기 위해 公開選拔戰의 개념, 選手團構成에 있어 均衡問題 등 相互間에 爭點으로 飛火될 수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그 用語의 뜻과 範圍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40년의 分斷狀況에서 단일팀 構成・參加라는 歷史的 事業의 實踐을 約束하는 設計圖라고 할 수 있는 合意書를 採擇함에 있어 合意書에 사용된 用語가 애매모호하여 雙方間에 解釋上 根本적인 見解差異를 노정한다면 과거 南北間의 合意書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쓰라린 前轍을 또다시 밟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側이 提示한 合意書(案)에서 選拔戰 競技場所, 輸送手段 등에 대한 貴側의 主張을 考慮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 雙方은 단일팀 推進에 있어 스포츠精神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選手選拔, 選手團 構成問題에서 雙方은 이같은 精神을 反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팀 構成・參加와 관련하여 상대측의 內政, 法律制度, 軍事訓練 등 體育外的 문제를 提起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貴側이 이 問題에 대해 同意를 표시하면서도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 방안속에 그러한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留意하여 貴側의 主張을 受容하였습니다.

셋째, 合意事項이 履行되지 아닐 경우에 대한 措置問題입니다.

雙方은 合意事項을 성실히 履行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어느 一方이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팀으로 參加한다는데 合意하였다는 사실을 北京大會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通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보다 確實히 다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취해야 할 措置라는 것이 우리側の 立張입니다.

넷째, 단일팀 構成・推進日程의 遵守問題입니다.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申請 마감일은 금년 6월 22일로 이미 確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基準으로 하여 단일팀 構成・推進日程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合同訓練, 選拔戰 등 推進日程을 確實히 정해 놓고 그 日程을 遵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側은 단일팀 構成・參加의 분위기조성과 實踐意志의 確認을 위해 共同推進機構 發足以前에 親善交換競技 開催와 體育施設 事前踏査班의 交換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나 貴側의 主張을 고려하여 合意書(案)에서 이를 除外시켰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以上으로 우리側이 提示한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위한 措置의 內容을 말씀드렸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會談에서 우리 側이 提示한 合意書(案)을 중심으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大體討議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希望합니다.

우리 側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討議에 貴側이 진지하게 임한다면 오늘중으로 合意書(案)에 全般的인 意見一致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土臺로 한두차례의 文案整理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거쳐 合意書 效力發生日로 雙方이 合意한 2月1日까지 第8次 會談을 열어 合意書에 署名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을 바랍니다. 긴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北(김형진) : 긴 演說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물쭈 드시죠.

南(張忠植) : 아까 김團長께서는 그…….

北(김형진) : 좀 쉬고 말씀하십시오. 오래 연설하셨는데.

南(張忠植) : 그럴까요?

北(김형진) : 좀 쉬면서 제 말씀하는거 들으십시오.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이제 首席代表先生 길게 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首席代表先生은 이제 貴側이 새로운 合意書 案을 發表했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共同委員會 構成에 앞서서 親善交換競技와 施設踏查班交換을 進行할데 대한 貴側의 案을 철회한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貴側에서는 基調演說에서 그외의 別개 體育外的인 問題를 거론하는 問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共同推進機構의 構成과 運營細則에 종전

에 명시한 것을 그대로 뒤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응당 이미 승의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次, 5次 實務代表接觸에서 貴側의 승의書 案에 대해서 一定한 案을, 우리의 主張을 알아들을만큼 해설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貴側에서는 새로운 案에서 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基本승의書 해석에서 일부 조항들은 철회했지만 사실상 그 해석을 附則에 그냥 적용하도록 승의書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이외에 組織委員會에 보내는 書翰 또 이 問題들을 附則에 포함시켜서 基本승의書로 채택할데 대한 問題들을 종전과 같이 提起했습니다.

특히 10個項 해석에서는 일정한 前進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書翰에서는 역시 별개의 팀 參加를 前提로 하는 書翰을 提起할데 대한 問題는 아직도 撤回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4次, 5次 實務代表接觸에서 基本승의文件인 唯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10個項 승의書を 基本승의書로 採擇할 것을 提起했고 또 唯一팀 共同推進機構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方案 승의書는 별도 승의書로 採擇할 것을 提意했습니다.

또 이외에 當局의 保障覺書와 올림픽委員會의 保證覺書を 履行保障裝置 말하자면 擔保로써 채택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사실상 이번에 附則을 그대로 適用함으로써 一部問題에서는 前進이 있었지만 역시 유감스럽지만 從前의 案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미 4次, 5次 會談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한 바와같이 貴側이 제기한 附則의 案들은 사실상 唯一팀 共同推進機

構에서 토론되도록 首席代表先生이 읽은 共同委員會의 機能에 다 包含되어 있는 事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會談 막바지에 와서 이 問題를 새롭게 討論해서 時間을 늦추는 것 보다도 共同委員會에서, 이미 合意된 事項대로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해야 한다 이것을 명백히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張先生님 發表한 새 合意書, 다시 말하면 우리側으로 말하면 唯一팀 構成·參加 方案에 관한 合意書, 이 合意書 內容은 이미 6次 會談에서 合意되었고 이제 貴側에서 案을 내놓은데 보면 文章上도 사실상 거의 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文案上도.

그런 것만큼 또 5次 實務代表接觸에서 이 合意書의 序文問題도 合意를 보았습니다. 이런 條件에서 오늘 會談에서는 基本合意書의 文案整理부터 시작하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南(張忠植) : 이렇게 합시다. 말씀들으세요.

지금 貴側에서는 4次, 5次 實務接觸을 통해서 우리들이 提案한 그 附則에 대해서 이것이 會談 成功에 하나의 障礙라고 이렇게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側이 이 附則을 提案하는 背景은 結局은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形式은 갖추어 놓고 內容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서 中間에 가서 이 單一팀을 構成도 못해 놓고 적어도 合意內容만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애매모호한 이러한 問題가 惹起되어 가지고서는 다시 本會談에서 近 10個月에 가까운 그 長時間에 걸친 말이죠, 이것 險路이상으로 險路를 겪어가지고 雙方間 不美스럽게 單一팀을 構成못한다고 하게 되며는 이것은 民族앞에 큰 罪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더라도 單一팀이라고 하는 집을 짓더라도 그 設

計圖가 이것이 明確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複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라도 그 木手들이 서로 正確하게 그 設計圖를 把握할 수 있을 때 집
을 지을때 큰 障礙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6次會談까지 本會談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10 個事項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問題는 10 個事項에 대해서 意見의 一致를 보아 놓고 共同委
員會에 들어가서 이것이 여러가지 그 어려운 問題들을 除去해 줄 수
있는, 또한 우리 合意事項에 대한 10 個事項의 合意事項을 誠實하게 履
行할 수 있는 保障裝置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結局은 이 單一팀 構成
을 위한 10 個項에 대한 合意는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다 이
거요.

그런 過去에 우리가 처음 만난것도 아니고 그 동안 40年 分斷狀況
속에서 여러 차례 各種會談, 또한 體育會談도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
러나 무엇하나 民族앞에 떳떳하게 훌륭한 結果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가 過去를 反省해서 이제는
南北이 서로 믿을 수 있고 온 겨레의 信任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設計圖를 만들어서 차질이 없는 建議를 해야 되겠다.

나는 事實 이번 제가 附則을 내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소위 合意事
項에 대한 履行을 保障하는 것에 대해서 具體案을 내 놓았느냐. 여러
분께서는 자꾸만 그 難關을 造成한다고 합니다마는 지난 우리가 12月
달에 故鄉訪問團을 우리가 참 지난 赤十字會談을 보더라도 雙方間에
다 그 合意를 잘 해 놓았어요.

그 여러가지 등등 그 어느 한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提案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政治性을 띠는 問題를 提案함으로 인해서 結局 成事를 못시켰다 이거요.

그렇다고 하게 되려는 合意는 해놓고 實行을 못하는 그러한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欺騙하는 그러한 行爲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體育會談에서 우리 體育人답게 이러한 것은 排除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用語上에 있어서 말씀이죠, 이 問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애매모호했을 경우에는 共同委員會 백번 構成되면 될 합니까. 거기에서 監督, 코치들間에 여러가지 意見問題라든가, 雙方 10名씩의 代表가 모여가지고서 우리 열사람이 모여서 會談하는 것 이상으로 20名이 모여가지고서 더 難關을 招來했을 때 결국 本會談에서는 10個項의 合意봐 놓고 共同委員會에 가서 서로가 싸움박질하는 이러한 結果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는 合意事項에 대한 履行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體育會談에 首席代表로 내가 이번에 처음 나왔고 지난 로잔느會談에 次席代表로 나가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40年間に 不信의 골이 깊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 쏜다 하더라도 서로 믿지 않는 이러한 風土에서는 서로의 그 主張하는 그 內容을 이것을 明確하게 記錄을 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것은 지난 우리가 79年度에 平壤에서 世界卓球選手權大會가 있었어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張先生님 또 歷史…….

南(張忠植) :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歷史가 아니라 내가 附則을 내놓게 된 그 背景을 말씀드릴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그 單一팀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代表들이 그 로잔느에 가서 貴側에서 비자를 줄까 해서 기다렸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나온다 이거요.

내 참 가슴을 조아리면서 이거 北側에서 같은 民族에게 다른나라 팀들 다 招請하면서 우리 같은 民族인 우리팀을 招請안한다 하는데서, 비자 안준다 하는데서 사실 그때 섭섭하게 생각하고 참 이러한 일이 이번 會談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問題가 있는가 하려는 내가 이런 具體적인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保障裝置에 대해서 神經을 쓰는 가에 대해서 理解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84年度 말이죠. 貴側에서는 그 「프라하」에서 열한 십일 個國家, 社會主義國家 體育會談에서 말이죠, LA 올림픽의 보이코트 宣言에 正式으로 加擔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5月 25日날 板門店 3次會談에 나와서는 LA 올림픽에 單獨으로 가지마라, 約束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5月 24日 貴側에서는 「프라하」에 가서 LA 올림픽에 社會主義 國家가 參加를 안하는데 加擔하고 그 이튿날 우리 보고서는 單獨팀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며는 과연 이것이 그당시에 單一팀을 위한 眞心이었느냐.

이것도 이게 北京 아시아 競技大會에 參加하는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張本人으로 首席代表로 나왔다 이거예요. 首席代表로 나와가지고 과거에 우리 先輩 會談代表들이 했던 그러한 結果를 再現시킨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여기 말장난 하러 나온게 아니고 單一팀

을 하기위한 10個 事項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 共同委員會 가서 싸움박질하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서로 헤어지자 이런거 있어서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야 애당초 會談을 안했어야 되는 것이고 會談을 提議했 으며는 雙方이 여기에 대해서는 努力을 경주해서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過去에 믿을 수 없는 이러한 不幸한 歷史가 있고 記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立場에서 제가 附則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거 자꾸만 지난 4次, 5次會談때 우리側 代表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또 提案한 것에 대해서 마치 單一팀을 깨기 위한 障礙요, 難關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眞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會談 꼭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立場에서 이 附則을 提示한 거니까 우리의 眞心을 誠意있게 받아주시길 부탁하면서 이 附則에 대한 草案을 검토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10個 事項에 대한 것은 본 회답에서 토의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까?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張先生님, 唯一팀을 기어코 成事시키자는 意志입지요?

南(張忠植) : 그거야 뭐 말할것도 아니지요.

北(김형진) : 그러면야 통속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근 열달되어 오게 討論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合意해서 서명할 段階에 왔는데 서른 몇 개項을 와르락 쏟아 놓고 이제 또 그걸 하자고 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서른몇개項을 놓고 말하면 거의다 共同推進機構

에서 討論하게끔 이미 合意事項에 明示되어 있는 項들인데 왜 共同推進 機構에서 討論될 項을 會談에서 討論하자고 그러는가. 이것은 곧 會談의 막바지에 와서 難關을 造成하고 複雜性을 造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論理的이지요.

그 다음에 張先生, 무슨 信用이요 이거 마치 부치게 되면 얽어매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천 만에 말씀입니다. 附則을 制定한다고 해서 擔保가 保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合意事項, 이때까지 아홉달동안 뭐 할려고 열명이 마주 앉아서 분투하면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러 저러한 境遇를 다 생각해서 열개項을 만들었고 또 共同 推進機構 構成과 運營에 관한 方案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信用과 擔保物制度, 合意書에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걸 수표 하고 推進機構 別途 合意書에도 이렇게 한다는 걸 수표하고 더욱이 이 모든 會談에서 合意된 問題를 當局이 保障한다. 또 올림픽 委員會가 保證한다, 擔保한다 이것이면 信用이고 얽어매는 것이지 以外에 무슨 또 附則의 適用이 더 必要합니까?

다음 둘째로 貴側에서는 信用, 信用하면서 過去를 되풀이 하는데 그래 과거회담에, 張先生님 로잔느會談에 次席代表로 나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은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張先生님 언제 代表團 마주 앉아서 수표한적 있어요? 또 唯一팀의 名稱조차 合意하지 못한 지난 時期 會談에서 무슨 信用問題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그야 없지요 張先生님.

아 무슨 合意가 이룩되고 그 다음 수표하고 해야, 수표한 다음에 合意안되면 어느쪽이 지키지 않았다. 이럴때는 信用과 뭐 이거 모든게 뒤

따르는 것이지 지난 時期 體育會談들에서 수표한 적도 없고 또 수표는 둘째치고라도 唯一팀 名稱마저 하나 合意 못한 會談들인데 그걸 놓고 무슨 信用이요 말할거 있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論理입니다. 그런것 만큼 張先生님! 이거 누구 말마따나 現實的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사람들 앞에 1月 18日날 合意書文件에 수표하고 發表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月正初에 들어와서 10日, 15日 이렇게 實務者 代表會談을 하는데 10日날 와서 서른 몇개項을 왁 쏟아놓고 이제 이걸 合意하자, 이거 討論해서 合意하자.

열개項 合意하는데도 술한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수표하자는 이때와서 이걸 討論하자. 이거야 내일 모레면 당장 結束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다름 없지요. 이렇게 現實的이며 또 事實上 貴側이 이런 保障問題, 얹어메는 問題가 있다면 우리가 이 唯一팀 構成方案에 관한 合意書는 근 열달, 아홉달 지났습니다. 이 동안에 對比表만 해도 몇차례 交換했습니까?

南(張忠植) : 對比表, 세 차례 …….

北(김형진) : 세 차례, 그 다음에 合意書도 우리가 얼마나 주고 받았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서로가 研究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열명이 다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때 아마 貴側에서 이런 保障裝置가 있어야 이거 빠지지 못하고 唯一팀이 틀림없이 된다면 貴側에서 그토록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唯一팀을 成事시킬 意志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意志가 차고 넘쳤다면 사실상 그때 다해서 쪽 했으면 아마 지금전에 討議가 끝났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 세번째로, 이 附則을 놓고 말하며는 이미 貴側에서 이 附則案의 內容들을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자고 合意된 合意事項입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合意된 合意事項을 유린하면서까지 共同推進機構에서 討論할 事項을 會談에서 討論해야 署名하겠단다.

이거 討論안하면 우리 署名안한다. 아 이거야 뭐 事實上 會談앞에 우리가 뭐 張先生님은 障礙를 造成했다, 難關을 提起했다 하는 問題에 대해서 아까 歡談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明白한겁니다.

南(張忠植) : 지난번 우리가 이 6次 會談까지 오는 동안에 그 名稱하나 問題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長時間을 끌고 여러차례 會談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會談이 우리가 이 政治的인 그러한 會談이 아니고 純粹한 참 體育人들이 民族에 큰 膳物을 안기는 그러한 會談이 돼놔서 過去를 자꾸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過去가 있기에 우리가 過去에 不美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재연 안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또 나는 分明히 김단장께 말씀드렸어요. 이 單一팀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設計圖가 잘되어야 한다고.

만약에 貴側에서 정말 眞心으로 이 會談을 成事시킬 수 있는 그러한 使命感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附則은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4次, 5次때 雙方이 서로 意見을 開陳하는 동안에 서로 참 言聲도 높았고 그렇게 밝은 場面은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貴側에 어떻게든지 單一팀을 만드는데 우리가 誠意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立場에서도 相對가 있는 것이고 또 貴側의 意見도 우리가 尊重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貴側의 意見도 받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程度의 內容도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6次會談때 말씀이죠 貴側이 우리들로 하여금 貴側에 대해서 眞心이 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貴側에서 共同委員會 우리 그 貴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提示했던 것에 대해서 바깥으로 봐서는 참 다 양보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시다만 어떻게 이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말이죠 共同委員會 細則을 보는데 그냥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그것 다 됐다고 다 讓步한다고 말이죠 우리 單一팀 만드는데…….

北(김형진) : 자 이거 아직도 또 이제 基本發言에서 내가 遺憾스럽다 그 만큼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南(張忠植) : 아니 내 말씀들어보세요. 밖으로 보기에 정말 讓步를 하고 受容하고 말씀이죠 單一팀 만들어 놓았지만.

北(김형진) : 張先生, 잠깐 張先生님! 안됩니다. 말씀을 좋게 해야지 그렇게 또 받아들인 것을 또 무슨 빨리 받아먹느냐 하는…….

南(張忠植) : 아니죠. 왜냐하면 그 느낌을, 느낌을 사람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아니 느낌이야 그쪽에서 내놓은걸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지 무슨 또 이것이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南(張忠植) : 그렇다고 하려는 이것이 10個 事項을 여러분께서는 빨리내서 本會談 이것 자주 10個 事項 合意한대로 보고 그다음에 共同委員會

가서 우리가 어떠한 難關이 일어날 것은 생각 안하고 그저 일사천리
격으로 잘 될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過去에 우리의 모든 各種 會談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眞摯하게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이
誠意를 보이는데 있어서는 우리들의 附則에 대해서 全部다 調整을 해
서 내 놓았습니다.

貴側의 意見도 받아들이고 해서 내놓았는데 이것을 자꾸만 걸림돌로
생각하고 障礙要因으로 생각마시고 우리가 提案한 이 附則問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受容해 주기를 眞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

北(김상부) :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 있는데. 이제 저 首席代表先生 말씀
과정에 基本方案問題하고 이 附則問題와의 關係問題를 말하면서 形式은
갖췄는데 이제 內容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걸 좀 이
問題에 대해서 상당히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個月 동안에 걸쳐서 그 基本方案을 내놓고 여기에는 內容
뿐만 아니라 모든 問題가 다 包含되어 있는 이런 方案인데 그것을 形
식에다 비유하는 自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基本方案을 形式이라고 보는 이런 態度는 물론 지난 5
次 會談에서도 그런 發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發言에 대해서
이거 좀 注意하는게 좋겠다. 이런 發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基本方案을 놓고…….

南(朴秀蒼) : 아니 김선생! 누구보고 지금 조심하라는거요! 누구보고 지
금 조심하라는 이야기야!

北(김상부) : 예, 아 이게 보아 基本方案있지 않아요, 基本方案을 이 基本方案…….

南(朴秀蒼) : 무슨 말씀이 그래요 진짜?

北(김형진) : 아니 朴先生, 朴先生, 朴先生!

北(김상부) : 아 가만 있으라. 말하는데 왜 자주 이러시요.

南(朴秀蒼) : 아 누구 보고 지금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北(김상부) : 會談 道德性을 지켜야지 왜 그러우?

南(朴秀蒼) : 道德을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首席代表한테 뭐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그래요 정말!

北(김상부)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基本方案 10個 項을 놓고서 지금 열달동안 討論을 해서 이 무슨 만들어 놓았지.

南(朴秀蒼) : 최소한도 禮儀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南(李學來) : 原則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벌써 用語에 대한 基本이예요. 用語가…….

北(김상부) :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요만치 5次 接觸때 빈껍데기로만 말했습니까?

南(李學來) : 아 形式이라는 이야기가 그 用語에 대한 예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南(朴秀蒼) : 首席代表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빈껍데기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北(김상부) : 아니 明白히 말해서 形式을 갖추고 內容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附則問題가 重要하다.

北(김형진) : 됐어요.

南(任台淳) : 승의書라는 말만 꺾 데기만 붙여가지고 되는것 아니지 않아요? 內容을 채우자는 이야기지. 승의書라는 말만, 꺾 데기만 붙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南(李學來) : 그 內容을 채우자는 이야기지. 아니 用語에 대한 理解不足이지.

北(김형진) : 가만, 가만…….

北(김세진) : 내 附則과 關聯돼서 좀 重要的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제 그 首席代表先生께서 附則問題 가지고 많이 이야기 됐고, 또 오늘 이제 첫 發言에서 附則에 包含됐던 一部 親善交換競技問題라든가 施設踏査班問題들을 그 이제 處理한거, 이런 것들은 이제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附則에서는 그 7가지 그런 項이 남아 있는데 이 7가지 項들 그 內容을 하나 하나 다 따져보며는 그 內容이 대다수는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자고 우리가 이미 승의한 事項들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 이제 具體的으로 좀 實例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그 附則 2번째는 이런겁니다.

『本승의書는 10個項 內容 및 附則의 用語解釋에 관한 승의書는 別途로 作成한다』 이렇게 하고서 「附屬승의書 2」라는 것을 따로 作成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附屬승의書 2」라는걸 놓고 보면 여기 이제 14個의 細部項目들을 決定해 놓았는데 여기 14個 細部項目은 그야말로 100 %

그대로 다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論해야 할 問題들이다. 具體적으로 이 「附屬合意書 2」에 定해진 이런 項目들에 몇가지만 實例를 들겠습니다.

우선 이 附屬合意書 9번째, 9項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 게되면 『第6項 “다”目的 團長은 選手團을 指揮・監督하고 總監督 任命 등 選手團을 管理함에 있어 提起되는 모든 問題들 處理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團長의 指揮, 特히 이제 무슨 貴側에서 말하는 「코치」라 든가 監督을 任命하는 이런 問題들인데 이 問題는 우리가 唯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 이미 合意한 겁니다. 여기 構成・運營方案, 여기서 이제 큰 첫째 共同委員會 거기 이제「가」機能입니다. 그러니까 共同委員會 機能 여기에서 (2)에 (가)에 또 그안에 든 ①, 어떻게 規定했 는가 여기에? 『種目別 訓練參加 人員數(選手, 監督 및 코치)에 관 한 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한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合意 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며는 이러한 問題는 이미 우리가 合意된데 따라서 共同委員會에서 해야 할 所管이 아닌가, 機能에 속하는 問題가 明白하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다 또 複雜하게 이렇게 定할 必要야 있겠는가 하는 問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附屬合意書 3」은 다 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第4項 “다”目的 『서울・平壤 등 南北 의 地域이라 함은 서울과 平壤이외의 다른 都市도 包含됨을 말하며 南 側地域은 서울・釜山・大邱・光州・大田, 北側地域은 平壤・南浦・元山・新義 州・咸興을 選拔戰 場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바…….

南(李學來) : 그건 지난번 이야기예요. 지난번 지난번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北(김세진) : 가만李先生! 이야기 좀 들으시오.

南(李學來) : 우리가 修正提案을 했잖아요?

北(김세진) : 아 얘기 좀 들으시오. 이거 修正案냈는데 여기 이걸 그대로 살아 있어요.

北(김형진) : 그럼, 오늘은 修正案낸거죠.

北(김세진) :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選拔戰 場所問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選拔戰 場所問題인데 우리가 이 選拔戰 場所問題와 關聯해서도 共同委員會에서 이미 討論하도록 이렇게 合意된 問題다.

이 共同委員會 機能 여기 이제 그 (가)에 ② 여기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있는가. 『種日別 選手訓練(合同訓練 및 強化訓練) 및 選手選拔戰의 日程 및 場所에 關한 事項 이것은 共同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選拔戰 場所를 共同委員會에서 이렇게 審議・決定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合意했고 決定된 問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場所問題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 討論하자고 했는가? 이것은…….

南(李學來) : 김선생, 김선생!

北(김세진) : 아 내 얘기 좀 들으시오.

北(김형진) : 조금만 들으시오.

北(김세진) : 결국은 이 會議을 複雜하게 하는 것 밖에 더 있는가. 앞으로 이것 다 討論하자면 이미 決定된 問題들인데 왜 여기다 이렇게 또 정해 놓고 附則이라는 걸 만들어서 複雜하게 할 必要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 됐어요. 내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附屬合意書 뭐 그4. 이것 뭐 記錄種目에서 選手選拔을 어떻게 한다 5. 鬪技種目에서 選手選拔을 어떻게 한다 6. 球技種目에서 選手選拔을 어떻게 한다 이런 問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選手選拔과 關聯된 問題인데 이걸 뭐 內容 다 읽지 않아도 이것 다 理解할 수 있겠는데, 이 問題는 무엇인가 이 問題는? 共同委員會 機能, 이자 내 그 얘기한 것 처럼 (1)에 (가)에 ③項에 該當하는 것 입니다. 여기는 『種目別 選手選拔戰의 具體的 方法,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및 審判選定에 관한 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選手選拔方法和 關聯된 이 問題는 이 項에 따라서 應當히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議해야 할 問題입니다.

이거는 雙方이 어떻게 하자고 이미 合意를 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合意事項 履行으로 놓고 보나 또 오늘 이 會議을 빨리 우리가 그 말 하자면 原則的인 問題들을 結束해서 唯一팀을 世上에 公布하자는 그런 그 意志로 보나 이런 問題를 여기다 놓고 하는 거는 이모저모에서 複雜한 問題가 아닌가.

以外에도 이 附則問題들 다 提起했는데 대체 內容들이 이러이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附則 問題에 대해서 이자 首席代表先生께서 말씀하셨습니다. 唯一팀을 하자는 意圖고 우리는 이 附則을 여기서 合意書에서 빼자는 것을 결코 完全히 撤回하자는, 排除하자는게 아니고 共同委員會에 가서 이것 討論하자는 겁니다.

그런 條件에서 오늘 이 會議을 18日날까지 정말 署名을 해서 完結하자고 한 이상 그런 意味에서 本적에 이 附則을 앞으로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論하도록 하고 이 合意書에서 빼고 오늘 10個 事項 또 그다음 이 共同委員會 構成・運營 方案에 대한 文項整理를 하고 團長先生님들이 수표를 해서 世上에 公布를 하는게 意義가 있지 않느냐 唯一팀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걸 내가 提起합니다.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張先生님!

南(李學來) : 저기 金團長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附則 事項들이 모두 共同委員會에서 論議되기로 이미 合意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合意를 했습니까 우리가? 제 記憶으로는 지난 6次때 우리가 내놓은 案을 貴側에서 뭐 다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北(김세진) : 合意된 것이다.

南(李學來) : 아니 아니죠, 合意된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意見을 貴側에서 뭐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合意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書面으로, 文書上으로 合意書가 作成이 돼서 署名이 되어야 合意가 되는 것이지 合意가 어떻게 그냥 口頭로 그렇게 해서 合意가 됩니까?

北(김형진) : 아 이거 또 李先生 또

北(김세진) : 學來先生! 合意라는 뜻을 正確하게 理解하셔야 됩니다.

南(李學來) : 아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7次 會談때 우리가 合意書에 署名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분명히 記憶을 하고 아마 會議錄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됐고 7次 會談때 本會談에서 이 事項을 書面으로 公式的으로 合意를 하기 위해서는 實務會談에서 具體的인 作業을 해야할 것이다. 그

具體的인 作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履行保障裝置가 包含이 된 겁니다.

그럼 貴側에서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차례에 걸친 實務會談을 한거 아닙니까. 實務代表 接觸課程에서 合意가 안됐죠? 그럼 아직까지도 合意가 안된 狀態예요.

아직도 合意가 안된 狀態에서 자꾸 合意가 된 事項을 가지고 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뭔가 根本的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誤解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마는 사실 지난번 6次 會談때 이 合意事項, 이 合意를 公式的으로 하기 위해서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案을 각기 가지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實務會談에서 그걸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측에서는 그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案을 이 附屬, 저 말하자면 案으로서 가지고 나갔었는데 貴側에서 아마 안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北(김세진) : 다 췌어요. 學來先生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구만.

南(李學來) : 다만 다음 共同委員會에서 해야 할 事項이라는 것만 가지고 主張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는 이 履行保障裝置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合意覺書에 署名하기 전에 論議가 돼야될 事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共同委員會에서 하기로 合意가 된게 아니에요.

北(김세진) :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내 그 問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學來先生이 지금 合意가 됐다 안됐다 하는데 이걸 여러차례

會談에 걸쳐 合意가 됐다는 건 다 認定된 問題고 우선 이 合意라는 概念을 똑똑히 理解를 하셔야 돼요.

合意라는 건 뭐인가? 意思를 모두는 겁니다. 意思를 모두는 거.

南(李學來) : 그래서 …….

北(김세진) : 그래서 貴側이 내놓은 코리아選手團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대한 이 方案을 내놓지 않았어요? 6次 會談때.

南(李學來) : 그건 案이에요.

北(김세진) : 그래서 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좋다 이렇게 同意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貴側과 우리간에는 이 共同委員會 運營・構成에 대한 意見이 모두 마쳤고 見解가 一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合意된거고.

南(李學來) : 合意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北(김세진) : 會談에서는 이렇게 合意된 問題는 互相合意된 問題로서 尊重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慣例고 道德이고 規範입니다.

北(김형진) : 學來先生!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그럼되나요? 會談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北(김세진) : 貴側에서 이걸 合意가 안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

南(李學來) : 7次 會談에서 合意覺書 署名하기 전에 履行保障裝置 問題가 먼저 …….

北(김세진) : 아 學來先生!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會談에 대한 아주 그 …….

南(張忠植) : 가만, 나도 말한마디 할까요?

北(김세진) : 그 다음 履行覺書 問題도 지금 이게 뭐인가 하면 4次, 5次 實務代表接觸에 參加를 안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履行覺書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내왔고 다 相對側에 그 案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뭐인가 하면 當局保障覺書도 넘어가고 올림픽委員會 委員長의 保障覺書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요. 保障覺書 지금 履行保障覺書 問題에 기하는데 …….

北(김형진) : 그걸 正確하게 아셔야 하겠어요.

南(李學來) : 國務總理 會談에서 하자는 얘기 그거는 좋은데 그걸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南(張忠植) : 가만 계세요. 지난번에 合意했으니까 이게 다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貴側에 내놓은 附屬合意書 3個 말씀이죠. 그게 內容이 複雜하다고 하는데 貴側에서 다 理解가 될만한 것들을 내놨지.

우리 體育人들간에 常識을 벗어나는 말이죠. 그 無理한 이러한 것을 내놓은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案을 낸다고 그랬을때 相對方이 그래도 理解할 수 있는 그러한 다 社會生活이라든가 이러한 經驗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合當하게 研究·檢討해서 내놓지, 무작정 이것을 難關을 招來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저 아까 김상부代表께서 저보고 注意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우리 朴代表께서는 注意하라, 난 아직 우리같은 나이에 남보고 注意하란 말 안 해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난 사실 기분이 거북하지마는 피차간에 우리가 內容에 있어서 서로 相對方의 內容에 대해서 그 뜻을 理解를 못한다든가 또는 못 받아 들인다손 치더라도 서로 表現하는데 이제 그렇게 注意해야 된다고

니까 우리 朴代表께서 그러셨는데…….

北(김형진) : 아 張先生! 가만 좀 있으라요.

南(張忠植) :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共同委員會 이건 6月22日날 입
니다. 6月22日날 우리가 北京大會 單一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날짜라고 하는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며는 共同委員會에 까지 끌어오기에 앞서서 우리가 本會談하는 동
안에 3月9日부터 지금 한해를 넘겼습니다. 한살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共同委員會 그 雜多한 問題들을 보다 時間的으로 效
果있게 會談을 끌고 그 다음에 열사람의 각기 올림픽委員會 代表라든가
각 聯盟의 代表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本會談에서 그래도 걸러줄 것
은 걸러줘야 거기에서 큰 論爭이 벌어지지 않고 이것이 속한 時日內에
解決할 수 있죠. 어정쩡하게 해선 안된다.

실혹 그것이 거둬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저 確認하는 再確認하
는 立場이라고 하게되면 그 內容이 問題지 그 內容이 이 會談을 깰 수
있는 內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檢討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무조건 附則이니까 안되고 이것은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이 아니라 共
同委員會에 參與하는 雙方의 그 열사람씩들이 보다 效果있는 會議運營을
하기 위한 本會談의 使命과 그 機能을 效果的으로 이것을 表示한거에 불
과한 겁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그 말씀 잘했어요. 本會談의 使命에 맞게.

南(張忠植) : 또하나 用語에 대한 겁니다. 合意事項 말씀이죠. 合意事項 10
個項에 대해서 우리가 合意 해놓고 서로 公開戰이다 뭐다 하는 用語에
대해서 共同委員會 가서 아 그거 아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우린 받아

들인게 아니다 한다하며는 用語問題만 가지고도 상당한 거기에서 감론을 박이 전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合意書를 해놓고 本會談 끝내놓고 共同委員會가서 本會談에 임하는 사람들이 좀더 그 일을 手苦를 하더라도 그것을 正確하게 보다 細密한 設計圖를 마련했으면 共同委員會에서 이러한 副作用이 안 일어날 텐데 그 원망도 들게될 수 있는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걸림돌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障礙要因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內容이 우리가 그동안 6次까지 本會談을 하고 5次까지 實務接觸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討論한 內容보다는 내가 보기에 더 큰 討論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자꾸 말씀하셔야 그저 그 말씀인데 理解합니다. 張先生님 말씀하는거 내 다 알아들었습니다.

張先生님 이제 理解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張先生님이 理解하지 못합니다. 뭘 理解하지 못하는가? 우리 立場은 明白합니다. 내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立場은 貴側에서 提起한 附則을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하도록 合意됐으며 이런 것만큼 共同委員會 가서 討論하자 이겁니다. 案은 討論하고 그 런건 필요없다 이거 아니예요.

共同委員會에서 討論되게끔 發表했기 때문에 共同委員會에서 하자 이것입니다. 그걸 똑똑히 理解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張先生님 이제 그 本會談 代表의 使命에 맞게 權能에 맞게 해야된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本會談 代表에 부과된 任務와 權能에 됩니까?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會談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唯一팀 構成하기 위한 方案合意書를 合意해서 투표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合意書에 따라서 그것을 자로해서 進行되는 問題는 보다 높은 次元일 수도 있고, 共同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하기로 合意된 事項입죠. 그 執行을 共同事務局이 하고 그것을 保障하기 위해서 當局이 밀어주고 올림픽委員會에서 밀어주고 이렇게되는 겁니다. 이렇게 唯一팀이.

그 다음에 아까 學來先生님 내 말꼬리 쥐는건 아닌데 合意된거야 合意된거죠 뭐. 그래서 學來先生은 투표해야 合意된거다 하는데 見解一致를 보고 이렇게 共通點을 찾은거야 사실아닙니까. 基調發言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合意지. 그걸 뭐 意見一致가 다르고 뭐 意見一致를 보면 똑같이 合意된거지 뭐. 合意書에 署名했느냐 안했느냐 할 때는 다르지마는 意見에 合意된거야 合意된거고 口頭合意 됐죠.

그 다음에 張先生님 이제 우리 세분代表…….

南(李學來): 그때 意見一致라는 건 條件附였어요.

우리가 履行保障裝置를…….

北(김형진): 그렇게 합시다. 學來先生님!

그건 뭐 明白한건데. 이제 또 基調發言에서도 또 그러고 歡談에서도 그러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가 다 確認한건데 또 뭐 學來先生님 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럴 것 없고.

그 다음에 朴先生님!

南(李學來): 내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北(김형진): 朴先生님 좀 열을 낮추십시오.

南(朴秀蒼): 아니 한마디만 내 분명히…….

北(김형진): 아, 됐어요. 그래서 내 다 理解했어요. 됐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데.

南(朴秀蒼) :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일 어리죠?

그런데 禮儀에 벗어나는 行動을 내가 한번이라도 보였어요?

北(김형진) : 됐어요. 그래서 激하지 말고 열을 죽 낮추고. 이 좋은 걸 討論하는데.

그렇게 아, 우리 代表들 웃으면서 討論해도 끝이 없는데 악악 성을 내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들떠서 자기 말할 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貴側 首席代表가 아까 그 唯一팀 構成方案 10 個項 問題를 냈는데 우리가 이미 合意書草案을 썼습니다.

合意書草案을 썼는데 前文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差나는 것이 다 무엇인가? 단지 「1. 選手團 名稱」 1項에 관한 問題입니다. 1項에 관한 것, 우리는 1項에 우리말로 「코리아」로 英語로는 「KOREA」, 略字 「KOR」로 하며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하되 세글자로 表記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貴側에서는 中國語로는 英語發音대로 表記하되 「高麗」로는 表記하지 않는다. 요 差異點입니다 요 差異點.

南(張忠植) : 그것만 하더라도요. 내가 왜 用語에 대해서 解釋을 우리가 分明히 하자고 하나하면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가 本會談 때에 여기 우리 다섯사람 또 貴側에 다섯사람 다른 記者들 다 보고 있어요. 「高麗」로 안한다 그 몇차례 얘기했죠.

근데 貴側에서 案 내는거 보니까 그 「高麗」 짝 뺐다 이거예요. 벌써 우리가 本會談 끝나기에 앞서서 그 合意書案 貴側에서 내는거 보며

는 「高麗」 다 봤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백번하더라도 말이죠. 나중에 가서 말이죠, 또 뭐 빼놓고 말이죠, 넣느냐 안넣느냐 말이죠 이렇게是非도 벌어진 다 말이에요.

北(김형진) : 그래서 張先生님 우리가 「高麗」를 쓸까봐서 그러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글자로, 「高麗」 두 글자죠? 세글자면 「高麗」 안쓴다는거 明白해지는데.

南(張忠植) : 아니 그때 우리가 口頭로 合意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高麗」는 안쓰기로 表記한다. 굳이 넣겠느냐? 넣어야 되겠느냐? 난 넣어야 되겠다. 貴側에서 좋습니다 해놓고 이번에 文書, 文件 내놓은거 보면 그렇잖아요? 보세요. 똑똑히 보십시오. 여기 案이 있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 좋습니다. 張先生님!

南(張忠植) : 이런걸 하나하나 보더라도 貴側에서는 어떤건 슬쩍 말이죠. 넘어가고 記錄할 것 같은 건 안한다 말이죠.

北(김형진) : 됐습니다. 張先生님! 내말 들으십시오.

그럼 貴側에서는 이걸 놓고도 사실이냐 세글자 하면, 「高麗」로 하면 두글잔데 그 뜻인데 이걸 가지고 슬쩍 넘어간다 그러는데 명백한 것도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슬쩍 넘어가지 말고 딱 합시다. 「高麗」로 表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시다.

南(張忠植) : 지금 얘기하는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立場이.

北(김형진) : 張先生님, 張先生님! 내가 말씀드리죠.

南(張忠植) : 우리 立場이 10 個事項에 대해서 우리가 文案 지금 뭐냐하면 檢討할 立場이 아니예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南(張忠植) : 왜냐하면 貴側에서 附則에 대해서 뭐냐하면 難關을 造成하기
까 撤回하라. 아까 그 發言文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附則에 대해
서 뭐냐하면 提案한 그 背景을 說明을 했고 單一팀 構成하기 위해서는
이 附則에 대해서 貴側에서 좀더 誠意있는 檢討를 해주기를 要請을 했
는데 우리 要請에 대해선 아주 목살해 버리곤 그냥 그 10 個項에 대한
合意 그것은…….

北(김형진) : 아니 그게 張先生님! 목살이 아니에요. 明白하죠. 共同委
員會에 가서 討論할 것은 共同委員會가서 한다. 이걸 明白히 合意事項
履行이지 목살이 아니죠, 어디 목살 討論 안하겠다면 목살이지만 共同委
員會에서 討論하도록 밝히겠다는 건데.

그래 그렇게 합시다. 「高麗」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시다 張先生님.

南(張忠植) : 오늘…….

南(任台淳) : 내가 잠깐 좀 얘기합시다.

北(김형진) : 예, 말씀하세요.

南(任台淳) : 아, 지금 그 貴側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자리에서 지금 그
10개 합의서, 10개 그 項에 대한 文案整理를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물론 뭐 이 會議에서 文案整理를 할 수도 있습니다.

北(장 응) : 아 빨리 할 수 있지요.

南(任台淳) :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불적에는 이 文案整理라고 하는 것
은 合意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合意書에 이제 들어갈 基本 뼈대
들이 다 갖추어진 후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組立을 하는데 分칠을
할 것인가 하는 作業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몸통이 생겼으면 팔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일단락되며는 그것을 이제 組立을 하고 분칠을 하고 옷을 입히고, 이것이 이제 文案整理作業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일에는 順序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雙方間에 크게 見解差異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 根本적으로 지금 그 差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實務代表接觸에서 보려는 貴側에서는 우리側이 그 合意事項履行 保障裝置로써 내놓은 그 內容들을 全部 取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會議을 더 進展시킬 수 없겠다 이렇게까지도 막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측은 張忠植 首席代表님께서 첫 發言에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貴側이 主張하는 것들을 아주 慎重하게 이것을 檢討를 해서 우리가 꼭 必要하다 해가지고 이제 지난 實務代表接觸에서 냈던 案들에 대해서까지도 대폭적으로 이것을 지금 뺄것은 빼고, 내용을 바꿀건 바꾸고 이렇게 해서 貴側의 意思를 상당한 부분 尊重을 하는 이러한 趣旨에서 우리가 지금 合意書案을 貴側에 提示한겁니다.

그래서 이제 結果를 놓고 볼것 같으려는 지난번에 이제 10個項 附則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3個項을 덜어냈습니다. 3個項을 덜어낸 것은 貴側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選拔戰競技, 그 親善交換競技를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事前踏查班 交換을 하자. 여기 우리는 이것이 꼭 必要하다고 지금도 必要하다는 立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貴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 留保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用語解釋問題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用語解釋이라고 하는 것은 事實은 우리가 文案整理를 하는데 있어서 用語問題에 대한 뜻이 서로 달라가지고 자꾸 또 말썽이 나며는 文案整理에서 또 벽에 걸러버려서야 되겠는가?

北(김형진) : 文案整理를 간단히 할려고 그러니까.....

南(任台淳) :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할러니까 미리 말하자면 불씨가 되는 것을 이 말하자면 雙方 代表들이 말하자면, 會談에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아 놓는 것 이것이 代表團 임무에 충실하는것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러한 用語들에 대해서 貴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소? 우리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意見들을 조금더 深度있게 討論해서 이 單語는 우리 이러한 意味로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지금 그 김세진代表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컨대 都市를 뭐 서울·平壤 등 이렇게만 했는데 다른 都市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쓰는것은 問題가 있지 않느냐, 共同委員會에서 協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貴側意見을 尊重을 해서 뭐, 그럼 그것도 그럼 共同委員會로 넘겨놓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거고 또 輸送手段問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輸送手段問題에 대해서 各種 輸送手段을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貴側이 體育會談 過程에서

수차에 걸쳐서, 單一팀 問題를 舉論할적에, 過去 體育會談過程에서 누차에 걸쳐서 提案을 했고 그걸 主張을 해왔던 그러한 內容입니다.

그리고 그 內容은 事實 좋은 內容입니다. 그러니까 各種 輸送手段을 自由롭게 使用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야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現在 南北關係現實로 봐서 여기에도 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는 그렇다면 우리 이 問題에 대해서는 留保를 하자 그래가지고 또 양보를 한 겁니다.

北(김형진) : 이야기 하실거 많습니까? 시간 가는데 좀 간략히, 좀 간략히 좀 말씀해야 다른 분도 말씀하시지.

南(任台淳) : 예, 그래서 이제 體育外的問題를 舉論하는 問題와 關聯해서도 이건 當然히 이건 基本合意書에서 確實히 이전 南北間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이래 그 趣旨에는 同意를 하고 또 그리고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속에도 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도 우리가 留意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털어내 가지고 지금 그밖에도 이건 뭐 表現같은데에도 완화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놓은 案이, 附則이 일곱개 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개 項을 놓고 보며는 지금 共同推進委員會 構成·運營方案은 事實上 貴側이 同意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部分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項을 뭐 修正·補完해서 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마는 事實이 修正·補完한 部分은 本質的

인 修正·補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貴側하고 討議를 하는 過程에서 우리 서로 融通성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協議할 수 있는 內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事實上 意見이 일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北(김형진) : 文案整理부터 始作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끝에 가서 解決합시다.

南(任台淳) : 그 다음에…….

北(김형진) : 끝에 가서…….

南(任台淳) : 얘기를 들어보세요.

北(김형진) : 혼자 이야기 하십니까 任선생님.

南(任台淳) : 그 다음에 當局間에 保障覺書를 交換한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雙方間에 意見이 一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日程을 遵守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이걸 事實上 雙方間에 協議가 됐고 또 별 問題가 없이 지금 雙方間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發效日字를 2月1日날로 하겠다 이것도 雙方間의 意見이 一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問題는 결국 用語解釋上의 몇가지 사항 그리고 北京 올림픽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 앞으로 南北 雙方이 單一팀 構成問題와 관련해서 이렇게 合意했다는 기본적인 內容을 通報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問題를 附則으로 당연히 넣을 內容을 넣자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難關이다. 이렇게 돼가지고야 이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말씀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北(김형진) : 계속, 계속 任先生! 계속합니다.

南(任台淳)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修正案을 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貴側은 아시다시피 지금 首席代表, 貴側團長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實務代表接觸에서 雙方間에 意見이 相當히 맞지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야말로 誠意를 다해서 調整案을, 折衷案을 지금 내었는데 貴側도 이번에 우리側의 意思라든가 우리側의 意思를 尊重, 尊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側 意思를 좀 參考를 해서 무슨 折衷案이나 調整案을 가지고 오셨는지, 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北(김형진) : 이젠 끝났어요? 아직 任先生 상당히 전번에 實務代表, 首席代表 말하시더니 상당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장선생 한번 좀 애길 해보시죠.

北(장 응) :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附則問題가 지금 提起되고 있는데, 우리 實務代表接觸에서 여러번 討論을 심각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附則問題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附則에 包含됐던 問題들을 털어버리는 건 좋은거고, 지금 實例를 들면 唯一팀 會談,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이라는 건 지금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그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지금 강가운데서 지금 「附則」이라는 칼을 잃어먹었던 말입니다.

「附則」이라는 칼을 강물에 떨어뜨렸다. 혼자서 뱃전에다 表示를 해놨습니다. 배가 이젠 저쪽 나룻터에 가 닿았는데 이쪽 뱃사공보고 지금 칼을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칼을 어디 떨어뜨렸느냐 그러니까 「附則」이란 칼을 잃어먹었는데 강에다 떨어졌는데 뱃전에다 표식을 해놨다 이렇

게 됐단 말입니다. 刻舟求劍이란 우리 張先生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모어의 하난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附則이 꼭 必要한 것이었다면 꼭 必要한 것이라 여기서 꼭 討論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이 附則을 本會談에 미리 내놔야 합니다. 물론 內容이야 다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할 問題고 우리가 말하는 건 무언가, 왜 障礙라고 하는가, 이 附則問題를 지금 당장 서명을 하게 됐는데 署名하게 된 段階에 와서 지금 附則을 덜컥 우리한테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障礙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貴側에서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任先生 實務代表接觸 때도 애길 했고 했는데 이거 10個項目은 몸뚱아리 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個項目에 머리도 있고, 팔 다리도 다 있고, 머리로 말하면 共同委員會가 머리고, 事務局이란 좋은 든든한 팔·다리가 있고, 選手選拔 어떻게 하느냐, 機能이 뭐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걸 지금에 와서 이걸 提示하고, 이거를 해야 文項整理를 하겠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도저히 이 會談을 빨리 成事시켜서 署名해서 唯一팀을 빨리 構成하기 위한 事業에 進入하자는 이런 의도가 아니다.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文件만 가지고도 충분히 唯一팀 構成을 위한 事業에 着手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問題는 共同委員會에서 하라, 共同委員會에 자꾸 불씨를 안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共同委員會에 불씨를 안고 들어간다고 하는지 理解가 안됩니다.

여기에 무슨 불씨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가지 문제들이 라는거 貴側에서 撤回을 하셨는데 이런걸 싹 털어버리고 그저 빨리 署名을 해서 内外에 發表를 하고 우리 온 民族앞에 誓約하는 것이 중요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예 알겠습니다.

目的은 우리가 지금 單一팀을 만드는 것이지, 目的이 本會談에서 合意하는 것 共同委員會에서의 雙方이 合意하는 것 이것은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죠.

目的은 우리가 共同委員會를 만드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이 本會談에서 10個事項을 合意하는 것이 目的이 아닙니다. 이것은 手段입니다 가기 위한.

그런데 本會談까지 우리가 지금 잘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배가 우여 곡절 속에 잘 끌어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갈아타야 할 이 共同委員會에서 잘 마무리가 돼야 單一팀 選手도 우리가 選拔할 수 있고 北京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共同委員會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貴側에서 共同委員會 우리 그때 그 規則을 낼 때 서로 이렇게 얘기없이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내놓은 共同委員會 「附屬合意書 1」이라고 하는거요 共同委員會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 機能·運營에 대한 것,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좀 더 確實하게 基盤을 닦기 위해서 거기 作成해 가지고 合意하자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걸림돌이 되겠나요?

이것은 정말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우리側의 誠意와 그 眞心이 거기

에 表示됐다고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問題인데 이걸 자꾸 걸림돌로 생각된다 여기에 지금 貴側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엇갈리는 거란 말씀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本會談 잘 끌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共同委員會가 選手訓練問題라든가 選拔問題 其他 여러가지 裝備問題 등등 뭐 團服問題 雜多한 問題가 있는데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큰 論爭이 벌어지지 않고 時間을 短縮시키고 本會談보다도 더 速하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共同委員會의 그 構成과 機能·運營 등등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合意하자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複雜하게 자꾸만 難關을 超來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共同委員會 우리가 왜 열어야 되느냐?

單一팀을 誕生시키기 위한 이러한 方案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共同委員會인데 이것을 좀더 設計圖답게 設計圖를 그려놓고 雙方 10名씩 代表가 나와서 論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이 眞心이 왜 이게 걸림돌로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참 저도 답답해요. 貴側에서는 떨쳐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設計圖를 자세히 그리자고 하자는데 대해서 設計圖를 갖다가 자세히 그리지 말자.

또하나 用語上的 解釋問題 간단히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過去에 지난 6次會談까지 名稱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상당한 論爭을 벌였습니다.

하물며 用語上的 解釋問題라든가 또는 현저하게 뭐 어떻게 選手를 말이에요 選拔한다든가 하는 이런 問題에 있어서의 그 말 하나의 表現가

지고도 共同委員會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이것이 뭐나하면 論駁이 展開될 수 있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本會談에서 用語에 대한 解釋上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체에다가 걸러서 돌과 모래를 갖다가 말이죠 分類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裝置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 쓸데없는거다』하고 말했죠. 貴側에서 이것을 털어버리라고 하였고.

또 하나는 세번째 問題입니다만 雙方이 서로 單一팀을 만들도록 參加하기로 合意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不幸하게도 單一팀이 안될 때 우리가 北京아시아大會組織委員會에 또는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우리側이 뭐나하면 單一팀으로 가기로 合意한 것을 通報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單一팀으로 가겠다 하는 것 말이죠 이것을 表示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뭐나하면 말이죠 이것이 時間이 끝나면 單약에 일이 잘 안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거 OCA라든가 北京組織委員會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 單一팀이 成事가 될려는지 과연 또 됐다고 하면 多幸이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分明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저희 體育人の 立場에서 이게 만약에 單一팀이 말이죠 前에 여러 가지 우리가 不美스러웠던 過去事를 갖다가 말이죠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豫測으로 되었을 때 우리 體育界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이죠 이러한 不安한 期待 이런 것도 우리가 分明히 밝히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해서 안됩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다 理解해요. 예, 다 들었습니다. 繼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알만합니다.

北(김세진) : 내 이거…….

北(김형진) : 가만히 좀 있으라요. (김세진 대표를 向해)

그 張先生님 昨年에도 내가 會談하시면서 요즈음 年歲가 있으니까 노파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또 今年에도 그 노파심을 좀 없애십시요. 자꾸 무슨 信用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아 信用이야 올림픽委員會 委任을 받은 나하고 아 張先生 수표하면 合意가 이룩되고 그걸 履行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아 보다더 나아가서 政府當局이 保證하고 밀어주고 올림픽委員會가 또 擔保하고 아 이렇게 하면 擔保야 그 以上 뭐 있나요? 附則이 事實上 擔保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내 말씀드리겠는데 이젠 時間이 저거 12時半 되었습니다. 그래 그저 張先生님 계속 하신 말 또 더하고 또 서로 이렇게 되어서 事實上 會談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엇갈리는 主張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明白히 합시다 明白히.

오늘 會談에서 貴側에서 이제 새로운 案을 내놓은 것을 보면 親善競技와 施設踏查班 交換問題를 撤回한 것이라든가 또 用語解釋에서 이러저러한 項을 削除한 問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前進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번째로는 附則問題, 貴側에서 말하는 별거아닌 事實上 별거 아닌 問題입니다, 별거 아닌 問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건데 共同委員會에서 討議·合意·決定하도록 되어있는 事項의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해서 얹어매는 것도 없고 또 이걸 안했

다고 해서 풀어놓는 것도 없습니다, 풀어놓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共同委員會에서 다 討論될 수 있는 問題인 것 만큼 張先生 돌아가셔서 잘 研究하셔서 마저 털어버리시기를 期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오늘 會談을 뭐 그렇게 보면 實務代表接觸에서 不一致되었던 問題 또는 異見이 있던 問題도 상당한 程度로 貴側에서 이제 털어버림으로써 어느 程度 前進이 있었고 그러나 아직 附則問題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돌아가서 그거 다시 明白히 말씀 안한건데 우리 立場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論할 性格의 問題이며 合意한 事項인 것 만큼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는게 좋겠다. 돌아가서 研究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會談을 이만 하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會談은 뭐 우리가 날짜를 정하도록 아마 結局 貴側에서도 意見を 받아보아야 되겠는데 다음 會談…….

南(任台淳) : 아니 뭐 折衷案 하나 안 내놓으시는 것입니까?

北(김형진) : 이래서 다음 會談에서는 그거 26日도 좋고 28日도 좋고 29日도 좋습니다. 다음 本會談이.

南(張忠植) : 내 말씀 다한 後에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래 26日, 28日, 29日 어간에 짚읍시다.

南(張忠植) : 나는 지난 5次 實務接觸 때 서로 結論없는 그러한 接觸이 되어 가지고 不幸한 本會談을 맞이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體育界 元老들 하고 相識도 하고 또 北側의 案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의 참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距離를 가까이 해야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體育界의 意思에 反하는 일을 내가 여기와서 내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내 自身 내 常識에 벗어나는 일을 나에게 그것을 委任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智慧를 짜고 時間을 消費해가면서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誠意를 表示하는 뜻에서 附則 특히 그 세가지, 共同委員會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共同委員會에서는 반드시 單一팀을 만드는데, 成事が 될 수 있는 그런 過程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共同委員會를 굉장히 重要視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共同委員會를 옹계 誕生 못 시키는 이 本會談은 아무런 意義가 없고 民族 앞에 우리가 뭐냐하면 허울좋은 살구만 우리가 안겨주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選手訓練 할 수 있고 選拔할 수 있는 그러한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共同委員會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用語上的 解釋問題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過去에 우리의 雙方의 前轍을 안밟기 위해서는 이 用語上的 解釋問題에 대해서는 이견 分明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國際機構에 대해서,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대해서 우리 南北韓 單一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展望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意圖를 알 수 있도록 그 結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것 分明히 해야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國際的인 禮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分明히 안하고 單一팀 만든다. 뜻이 좋다 이거예요. 물론 民族의 事業이니까 다른 國家가 거기에 關與할 問題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만의 하나라도 過去의 우리의 不幸했던 일들의 단 一部分의 일이라도 그것이......

北(김형진) : 張先生! 아까부터 繼續 그 말씀 또 하시는군요.

南(張忠植) : 아 가만있어 보세요. 글썄요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자꾸만 이 附則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強調하고 제 眞意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北(김형진) : 아까 우리 張先生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南(張忠植) : 그러니까 그 세가지 附則問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本會談에서 더 우리가 긴 時間을 갖기에 앞서 한번 지난번 우리 장선생님과 김선생님, 허선생님 우리 세사람 그런데 이게 좋지않은 實務接觸이 되었으니까.

北(김형진) : 예, 좋아요. 예예, 그런데 똑똑히 委任해줍시다 똑똑히.

南(張忠植) : 아 그건 그렇게 합시다.

北(김형진) : 똑똑히 委任해 주어야지 저 任先生하고 우리 장선생 전번에 實務代表接觸 우리가 空轉했던 말이에요.

南(張忠植) : 그래 實務代表接觸해서 다 우리 兄弟 아네요? 다 참 우리 그렇지 않소? 우리 다 한 핏줄에 한 兄弟아네요? 정말 實務接觸에서 지난번 내가 좀 들으니까 야 이거 兄弟들간에 너무 지나치게 싸움들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北(김형진) : 아니 아니지 그걸 또 싸움이라고? 그걸 싸움이 아니죠 論爭이지요 뭐 서로 自己主張을 하는거죠.

南(張忠植) : 本會談에서 이걸 뭐 우리가 서로의 意見들을 좀 걸러가지고 어떻습니까?

北(김형진) : 그래서 張先生님! 本會談을 26日, 28日, 29日 어간에서 決定하고 그 다음에 實務代表接觸 합시다. 基調發言에서 貴側에서 提起했는데.

南(張忠植) : 내가 달력 좀 보아야 되겠어요. 달력 좀 보아야겠는데.

北(김형진) : 예, 나도 좀 봅시다.

南(張忠植) : 지금 오늘이 이제 木曜日인데요 10日날 實務接觸을 제 立場에서는 20日날이나 22日날 했으면 좋겠고요.

北(김형진) : 20日날, 22日날? 오늘이 18日입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좋습니다.

南(張忠植) : 20日날이나 22日날.

北(김형진) : 짚으십시오. 어느 걸로 하십니까?

南(張忠植) : 어떠세요? 任先生? 月曜日날이에요.

南(任台淳) : 22日이 月曜日이기 때문에 23日날로 하죠.

北(김형진) : 가만 가만 가만 계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20日, 21日 이제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日, 21日?

南(張忠植) : 아니 그러니까 이제 實務接觸은 이 세분 나오실 것이니까 23日날 하자, 좋다고 그러고.

北(김형진) : 그럼 23日에 합시다. 23日

南(張忠植) : 그리고 이 本會談은 우리는 26日날, 27日날은 노는 날이에요. 民俗의 날이 되어서. 그러니까 30日날 어떻습니까? 30日날?

北(김형진) : 30日?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아니 그저 내가 사흘을 주었는데 26日, 27日, 28日 주었는데
그간에서

南(任台淳) : 아니 그 期間이 우리 설날입니다. 설날.

北(김형진) : 아 설날 뭐 좋습니다. 해봅시다래 뭐 설날.

北(김세진) : 아니 전번에도 설날 안쉬고 뭐 하셨다는데?

北(김형진) : 그러게.

南(任台淳) : 아니예요.

北(김세진) : 이왕 하던 일인데 한번 해보시지.

北(김형진) : 26日, 27日 가만 그러면 26日, 27日이니까.

南(任台淳) : 26日, 27日은 우리가 休日입니다. 公休日.

南(張忠植) : 30日날?

北(김형진) : 그럼 28日날 합시다 뭐.

南(任台淳) : 28日은 日曜日이죠?

南(張忠植) : 日曜日이거든요? 그러면 29日, 30日, 1日날 이렇게 있는
데 29日이나 30日날 내 생각에는 30日날 제일 좋겠어요.

北(김형진) : 29日날?

南(任台淳) : 29日날은 뭐 日曜日날 또 내려오셔야 될거 아녜요?

北(장 응) : 일없어요.

北(김형진) : 아니 일 없어요. 29日날 합시다 29日날. 本會談 29日날.

예, 그렇게 합시다. 朴先生! 熱이 다 내려갔습니까?

南(朴秀蒼) : 예.

北(김형진) : 근데 學來先生은 이따금씩, 曹先生! 그 옆에서 잘 말씀해

주라요. 거 이따금씩 『合意안된거예요』 뭐 이렇게 아 合意야 했죠. 合意된거야 合意했지 뭐.

南(李學來) : 意見接近하고 合意하고의 差異는 큼니다.

北(허혁필) : 그러면야 名稱도 合意안된거죠. 뭐

北(김형진) : 아 그 난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張先生님 그 별나게.

南(張忠植) : 어떻게 거기는 舊正 놓니까?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舊正 놀아요?

北(김형진) : 아, 놀지요. 거 놀지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南(張忠植) : 實務接觸에서 이제 잘들 하실거예요.

北(김형진) : 그런데 任先生!

南(任台淳) : 예.

北(김형진) : 아 거 任先生 그 목청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實務代表接觸 때 보니까.

南(任台淳) : 목청이야.(一同웃음)

北(김형진) : 오늘 曹先生 한마디도 말씀 안하세요? 아 曹先生이 빠져야지 야 뭐 曹英承先生 안 빠치면 됩니까?

南(張忠植) : 23日날 안된데요 UN司側에서.

北(김세진) : 22日날 하십시다.

北(김형진) : 22日날 합시다 그러면.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러니까 實務代表接觸? 實務代表接觸 22日날? 그래 22日

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아 이것 또 22日날…….

南(朴秀蒼) : 여기가 무슨 事情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南(任台淳) : 뭐 火曜日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北(장 웅) : 火曜日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北(김형진) : 자 돌아가서 잘…….

南(張忠植) : 예 手苦하셨습니다.

南(任台淳) : 자 여기도 악수하십시오.

北(허혁필) : 任先生! 手苦했어요.

南(任台淳) : 手苦했습니다.

南(曹英承) : 허대표 악수한번 안하시고 가시나?

北(허혁필) : 任先生하고 악수하느라고.

北(김세진) : 曹先生 오늘 한마디도 發言안하시는데?

南(曹英承) : 手苦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1.18(木) 13:00 ~ 13:32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張忠植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새해를 맞이해서 記者先生님들을 뵙게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7次南北體育會談은 10時 정각에 시작해서 12時 35분에 마쳤습니다.

지난 4次, 5次 實務接觸에서 우리側에서 合意書를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 北韓의 그 진의를 把握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우리 立場에서는 霧圍氣造成 問題라든가 過去에 여러차례의 南北會談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事實을 다시 되풀이 해선 안되겠다 그러한 뜻으로 共同委員會가 되기 앞서서 親善게임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것을 提案을 했었습니다.

이번 그들은 우리가 提案한 附則에 가장 중요한 問題는 北側의 참다운 南北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마치 本會談에서 合意를 해놓고 共同委員會에 가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狀況이 벌어진다고 하게되면 결국은 單一팀을 만들수가 없지 않겠느냐 진정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附則을 통해서 共同委員會에서 單一팀을 만들수 있

는 措置를 해야되겠다. 이러한 뜻으로 저희가 附則을 提案했던 것입니다.

그 附則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共同委員會가 開催되기에 앞서서 南北選手간에 親善交換을 하자. 즉 탁구, 배구를 통해서 霧圍氣 造成을 하고 다음 雙方의 스포츠 施設을 우리가 답사해야 되겠다.

다음은 輸送手段에 있어서 서로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동차를 가지고 北韓側에 들어가고 北도 자기의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여러가지 交通手段에 대한 것을 雙方이 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北側에선 附則이 마치 單一팀을 깨기위한 그러한 하나의 장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會談에서는 北側의 立場도 우리가 考慮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單一팀이 깨져서는 안되겠다 해서 오늘 우리가 몇가지 讓步한 것이 있습니다.

즉 親善交換 競技에 있어서 이것은 共同委員會가 設置되기전에 하자고 했던 우리의 主張을 우리가 讓步해서 撤回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體育施設 事前踏査도 이것을 우리가 交換하자고 하는 것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修正事項이 있다고 하게 되면 選手選拔戰 場所도 지난번에는 저희가 實務接觸에서 北側의 地域을 지명 했습니다만 이것도 撤回해서 平壤 등 이렇게 지명을 우리가 指定했던 것을 撤回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北側 立場에선 자꾸만 附則을 撤回하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記者先生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9年 平壤에서 開催되었던 世界탁구선수권 大會에서 北側이 갑자기 單一팀을 만들자고 해

놓고 결국은 單一팀을 만들지 못한 그 狀況에서 우리 選手團들을 平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잔에서 상당한 時間동안 저희들이 北韓側에서 비자發給을 기다렸습시다만 끝내 주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單一팀을 만들자고 했던 '79年度에 北韓側은 韓國選手團이 世界選手權大會에 參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해작전을 했던 것입 니다.

뿐만아니라 '84年度에 LA올림픽을 위한 南北單一팀을 만들자고 提案을 해왔고 바로 그것이 5月24日날 3次會談 하루앞둔 프라하에서 그 사람들은 社會主義國家 11個國이 參加하는 LA보이콧트포름에 가담을 했습 니다.

그래서 實質的으로 北韓은 LA올림픽에 參加하지 않겠다고 하는 意思를 發表해 놓고 바로 다음날인 5月25日 板門店에 나와서는 南韓側은 單獨으로 LA올림픽에 參加 안하겠다고 하는 約束을 해라 이러한 표리가 부동한 이러한 事例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번 6次會談에서 그들이 우리들이 提案한 共同委員會 細則을 檢討도 하지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南北體育會談을 政治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갈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렇게 저희들은 그들을 疑心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當局者들이 保障하면 다 되겠다 생각합니다만 過去에 南北體育會談의 經驗을 통해서 볼때 이것은 國民을 기만하는 그러한 會談이 안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本會談에서 이 附則을 通過시켜서 그 연 후에 우리는 合意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고 특히 北側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 OCA에 우리가 單獨팀으로 參加하겠다고 하는 이 事實을 통지해주는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不幸하게 單一팀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個別팀으로 가야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意志를 밝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탁구대회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쓰라린 일을 생각할때 만약에 北京大會에 금년 9月22日 우리팀을 못가도록 하는 이러한 방해만큼은 우리가 못박아야 되겠고 또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意思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合意書案에 대해서 同意해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立場에서 저희들은 附則을 提起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로서는 會談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랬고 또 잘 成事돼서 어떻게든지 今年 1月末에는 單一팀을 만들수 있는 이러한 合意事項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北側에서는 우리의 附則 提案을 撤回하라고만 強調했을뿐 다른 修正된 調整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날짜는 이제 本會談을 다음에 하자고 提議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本會談에서는 이렇게 長時間 동안 論議하기 어렵고 역시 實務會談接觸을 통해서 저희들이 提案했던 共同委員會에 대한 基本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별도로 作成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 거기에서 合意書를 보지 못하게 되면 實質적으로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北側의 虛構性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實務接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시간이 걸리드래도 거기에서 合意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北韓側에서 同意를 해왔고 다음 22日날 月曜日날 中立國監督委員會 事務室에서 雙方 實務接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29日날 이번에는 北側의 統一閣에서 8次 本會談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說明 못하는 것 많습니다. 과정에서 말씀하시지요.

質問 하시지요.

2. 質疑・應答

質問：實務會談에서 附則撤回는, 北側에서는 附則撤回를 繼續 主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實務會談에서도 우리側에서 그쪽의 誠意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possibil 可能性은 없습니까? 빨리고 하는 것은 可能性을 排除하십니까?

答辯：지난번 저희들이 附則提案에서 상당히 제가 讓步를 했습니다.

讓步를 했고, 역시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相對立場도 우리가 考慮를 해야 되겠다 해서 親善게임이라든가 交通手段에 대한 問題 등 事前踏査 같은 걸 다 讓步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共同委員會에서 우리가 큰 論爭이 없고 이것이 9月22日 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選手들의 訓練이라든가 選拔을 위해선 상당히 時間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共同委員會에서 合意書 만큼은 事前에 우리가 이것을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넘어가게 되면 共同委員會가 本

會談 못지 않게 더 긴시간 동안 雙方이 論爭이 벌어질거구요.

또 하나는 用語解釋上的 問題입니다만 지난번에 會談때 이사람들은 분명히 「高麗」라고 하는 것은 안쓰기로 말이죠 내가 안된다고 強調했고 그들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내놓은 合意書를 보면 「高麗」라는 것을 싹 뺐거든요. 그리고 보면 한 實例를 보더라도 앞으로 用語上에 있어서의 論爭이 會談을 解釋을 잘못 했을때 서로 우리는 이렇게 解釋한다. 저쪽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共同委員會에서 用語上的 問題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 질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會談에서 分明하게 10 個項에 대한 合意內容의 用語를 分明하게 우리가 解釋하고 거기에 서로가 確認을 하고서 共同委員會에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讓步를 한다고 하게되면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合意는 이루어지고 共同委員會에 가서 서로 싸움만 하는 그러한 共同委員會가 되면 또 이것은 우리民族을 슬프게 만드는 結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 지금 말씀을 다들 그렇게 해서 撤回可能性을 排除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答辯: 撤回 排除라니요?

質問: 附則 撤回의 可能性을 排除하셨다라고 얘기 해도 되겠는가요?

答辯(任台淳): 撤回 與否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代表團이 이 자리에서 答辯을 드릴 事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雙方間에 意見이 對立되어 있는 部分은 지금 附則條項 가운데에 불과 3,4 個項에

대해서 北側은 이걸 전면 撤回을 해라 하는 그런 要求고 우리側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러한 內容에 대해서는 雙方이 確實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對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實務代表接觸에서 우선 雙方間에, 이번에 折衷案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즉석에서 北側이 反應은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번에 折衷案을 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다 充分한 檢討를 거쳐서 이제 北側의 反應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討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北側은 附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附則으로 내놓은 가운데는 共同委員會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포함해서 이 合意書의 發效日字 問題라든가 北側이 이미 同意한 當局間에 保障覺書 問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側 말대로 附則은 全部 撤回하라고 하게 되면 雙方이 이미 合意된 內容까지 全部 撤回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合意事項 履行保障의 內容이 雙方間에 見解差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當局間에 保障覺書 만으로 充分하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合意事項 履行保障의 內容에 대해서 이제 雙方間에 意見交換을 좀더 해야 되겠다 그런 狀況에 와 있습니다.

質問：한가지만 더 여쭙보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것은 意見交換이 더 必要하다 하기 때문에 必要하다면 그만두고 實務會談해야 되겠다.

答辯：아니죠. 本會談도 하고 實務接觸도 하고.

質問 : 오늘 會談은 일단 그만두었다 하는 것 같은데 展望에 대해서 왜
나하면 兩側에서 서로 상대방의 '진실성'이라든지 진의를 의심하고 있는
데 會談中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과연 입질을 해가지고도 可能性이 있겠는지 展望을 좀 해주
십시오.

答辯 : 제 立場에서 생각할때 우리側 立場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건방지게 생각하겠습디다만 北側이 어떻게 誠意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저는 單一팀成事의 關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南北體育會談에서 그들이 보여준 여러가지 事例를 본다고 하
게 되면 과연 이번 北京아시아大會에 參加를 위한 單一팀 構成을 진
정으로 關心이 있느냐 그건 6次會談때 저희가 共同委員會의 細則을
내올때 그걸 檢討도 안하고 다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그러니깐 겉으로 보서는 北韓이 다 이렇게 讓步하는 것 같지만 실
지로 보서는 合意書만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共同委員會
에 가서 여러가지 用語上의 問題라든가 選手選拔, 訓練 등 體育外的인
그러한 問題를 과연 안들고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過去
事를 볼때에…….

그렇게 안된다면 천만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과연 會談에서 그들
이 얘기하는데로만 履行을 해준다고 하게되면 問題가 없겠습니다만 과
연 이러한 불신의 골이 지금 이렇게 깊이 파져 있는 이 狀態에 과
연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立場입니다.

質問 : 상당히 어둡다?

答辯 : 어둡다고 볼수는 없지요.

質問：合意書 發效日을 2月1日로 이렇게 決定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合意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이제 實務接觸에서 저희들이 다시 얘기할건 附則問題에 대해서 共同委員會의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우리가 별도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사람들이 받아 들이게 되면 6次會談에서 그들이 우리 意見을 받아드린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다면 附則의 附屬合意書들 이라고 하는 것은 6次會談때에 우리가 提起했던 그것 그대로 입니다. 거의 뭐 97~98%가 담겨져 있는데 아까 任代表께서 말씀한 대로 그것 撤回하라고 하게되면 6次會談때 우리가 共同委員會 細則內容을 저들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 그것 결국은 못받아 들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거든요.

質問：아까 김형진 團長은 언제까지 그럼 會談이 成事될 것으로 展望하느냐는 그런 質問에 合意書 發效日이 2月1日로 決定돼 있는 事實을 強調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合意書 發效日을 2月1日로 決定한 것은 오늘 會談을 하면서 合意聲明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前提로 해서 2月1日로 決定한 겁니까?

答辯：그렇게 展望을 보고요 實務接觸에서 잘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答辯(朴秀蒼)：제가 說明을 드릴게요. 왜 合意書 發效日字를 2月1日로 했느냐 그 質問이에요. 지금 김형진 團長도 2月1日로 發效日字를 하자는데는 南北間의 意見이 모아졌다 요런 얘긴데 왜 2月1日를 택했느냐.

그러면 오늘 1月18日날 지금 내놓은 合意書의 意見一致 돼 가지고 合意書가 採擇될 것을 前題로해서 그랬느냐 지금 이런 質問이시죠?

그건 뭐냐하면 6月22日이면 예비 엔트리 마감일입니다.

그것은 記者분들도 다아시는 事項이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역산을 해오다 보면 選拔戰을 가져야 되고 그 過程에서 合同訓練도 가져야 되고 選手團構成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역산을 하다보면 최소한 2月1日에는 合意書가 採擇이 돼서 發效해야 된다는 날짜입니다 2月1日이. 그래서 2月1日로 잡은 것 입니다.

質問: 그래서 역으로 計算해서 말만 생각한다면 會談展望은 밝은편입니까 아니면 어두운편 입니까?

答辯(朴秀蒼): 그건 北側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記者분들은 과연 지금 現在 附屬 7個項에 대해서 우리가 더 讓步할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要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北韓側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데 대한 展望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건데 우리는 물론 우리 지금 代表團 다섯이 여기서 決定할 事項은 물론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가서 合意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讓步할 것이 없어요, 讓步할게 없고 北側이 지금 附則事項으로 나와 있는 7個項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共同委員會에서 그걸 協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자고 文書上에는 나와 있기도 해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本會談에서 그 問題를 協議하려고 하느냐 느닷없이 合意書 採擇에

임박해서 느닷없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걸림돌, 저사람들 表現대로 한다면 걸림돌을 提示한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6次 지난 昨年 12月 22日에 開催된 6次 本會談에서 우리가 분명히 提示를 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討議를 하자 하는 內容을 提示를 했는데 그것 뭐냐하면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에 대한 信賴를 內外的으로 보다 確實히 하기 위해서 合意事項의 用語를, 用語에 대한 그 定義를 分明히 하자.

그리고 單一팀 構成 參加와 關聯한 日程을 우리가 정해서 그것을 분명히 遵守를 하자.

그리고 體育外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單一팀 問題와 連繫시키지 말자.

그리고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措置를 取할 것인가 하는 問題들에 대해서 서로 協議를 하고 이를 雙方當局이 保障하는 覺悟를 採擇을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北韓側에 提示를 했어요.

그러니까 北側에서 그래 우리도 다음에 나올때는 이에 대한 意見을 分明히 提示를 하마 이렇게 約束을 했던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會談을, 會談過程을 통해서 記者분들도 저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공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對應을 했는가 하는 것은 아셨겠지만 오늘의 會談은 要約을 하면 딱한가지 입니다.

北韓側은 지금 附則으로 우리가 提示한 內容들은 앞으로 構成하게 될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들이다 이런 것이예요.

우리는 천만에 말씀이다.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해야될 事項이라는 점을

否定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以前에 우리 本會談에서 共同委員會에서 協議해야될 事項은 요로요리한 部分은 지금 進行되고 있는 本會談에서 분명히 解決을 한다음에 共同委員會로 넘어가자 하는 것을 提示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저사람들한테 쉽게 끌릴것도 없습니다.

저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質問：3 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會談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 會談자체에 會談場 안에서만 일정한 진도가 있는데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 外部的인 會談外的인 것을 事實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3 次會談때 나왔던 北韓의 立場, 4 次에 나왔던 北韓의 立場, 5 次에 나왔던 北韓의 立場, 이를테면 4 次에서 그렇게 쉽게 다 받아들인 北韓側이, 우리側이 保障方案을 提示했을 적에 이런데서, 오늘도 보니까는 妥協案 提示하니까 그쪽에선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外部的인 것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會議雰圍氣 선입감이 사실 들고 그러기 때문에 現在 會談代表들께서 상대를 하시는 初期에 北韓에 本會談의 태도에 임하는 誠實성과 現在 7 次까지 하면서 最近에 相對側은 北韓代表들의 誠實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辯(朴秀蒼)：그렇게 큰 差異는 없습니다만 오늘도 저 北側이 우리가 多少 讓步하고 어떤 것은 撤回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進展된 우리의 태도를 저친구들이 評價를 할때 상당히 進展된 태도다 하는 식으로 評價를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北韓側의 첫會談에서

지금까지 쪽 거쳐나오면서 態度에 그렇게 크게 變化는 없는데 근자에 와서는 요것 하나만은 분명해 지는것 같아요. 굉장히 合意書를 採擇했다 하는 事實을, 署名했다는 事實을 對外에 자꾸 알리고 싶은것 같아요. 알리고 싶어하는 그 低意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것을 조금 다른 것과 聯關을 시키면 IPU 關係 記者분들 아시겠지만 저친구들이 會談劈頭에 會談하는 過程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聯關이 돼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質問：國際議會聯盟인가 뭐?

答辯：예,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事實을 알았느냐고 해서 아침에 新聞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잘못 우리가 會談이 그 걸 하게되면 南北單一팀도 合意해 놓고 이게 깨졌을때 결국은 國際議會聯盟이 平壤에서 열린다고 했을때 單一로 나가자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탁구대회 모양으로 비자 안주어 가지고서 우리 國會議員들이 平壤 못가도록 할려고 하는 그러한 作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問題입니다.

質問：問題는 결국 우리는 確實하게 해놓고 가야되는 것이고 저쪽에는 자꾸 共同委員會에다가 넘겨서 그쪽으로 하자는 겁니까?

答辯：그렇죠. 共同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한다면 選手들 選拔과 團構成 그 다음에 選手選拔問題의 體育技術的인 問題이거든요.

質問：基本事項에 基本事務가 전부다 連繫된 問題들 아닙니까?

答辯：예,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用語解釋上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넘어가게 되면 共同委員會가 本會談보다 더 큰 거기

에 論爭이 벌어지고요 實際的으로 單一팀 만들수도 없고 그 責任은 결국 우리한테 轉嫁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本會談에서 이렇게 讓步해서 해놓았는데 왜 共同委員會에서 너희들 主張만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答辯(任台淳) :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北韓側의 態度를 보면 展望과 關聯해가지고 말씀을 제생각을 드리겠는데 初期에는 呼稱, 團旗, 團歌 이 세가지 合意하자는데 말하자면 힘을 기울였습니니다.

우리로서는 事實 상징적인 것이다. 실제 스포츠 問題, 순수한 스포츠 問題라고 보기에선 참 어려운 問題 아니냐 이걸 그래 이제 團旗, 團歌 거기에 대해서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여간 그것을 合意했다고 하는 것은 意味가 크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스포츠 問題는 역시 스포츠 精神을 反映을 해서 이걸 合意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多幸히 말하자면 合意事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뜻이 담겨진 그러한 基本 原則的인 內容에 대해서 合意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共同推進機構는 完全히 實踐機構인데 이 實踐機構에 대해서 基本內容의 檢討를 거치지 않은채 同意를 해버렸다.

이건 뭐냐하면 그야말로 이걸 合意文書를 採擇했다는 發表만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合意事項 履行에 대한 保障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지난 年末年始에 우리

代表團이 열심히 研究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말하자면 保障方案을, 이걸 그야말로 정말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方案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걸 백방으로 研究해서 어떻게 보면 記者先生님들이 보면 좀 과한 것 같이 내놓지 않았는가 이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할려면 이것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런데 實務接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보니까 이걸 완전히 반박하면서 이렇다면 會談을 못하겠다 하는 것 이런 程度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北側에서 가장 強하게 반발을 보이는 部分이 무엇인가 檢討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部分은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北側도 정말 할 생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肯定的으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이 討議를 해보면 基本的인거야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 立場으로서도 어느정도 協議를 할 수 있는 立場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우리 案이니까 그런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協議에 應해 나온다면 合意書를 우선 만들어 내는 데는 成功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면 共同委員會를 運營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共同委員會構成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意志가 있는지 그걸 지금 確信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狀態에 있습니다.

質問：體育會談의 테드라인은 1月末 입니까?

答辯(任台淳) : 雙方이 1月末, 末일에 合意書 發效日字를 정해놓고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北側 意思가 있다면 1月末日까지 合意書
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質問 : 그동안에 問題는 實務接觸에서 좀 運營이 되겠조 아무래도?

答辯 : 그렇조 예.

감사합니다.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 1. 18 (木) 12:40 ~ 12:55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自由의 집」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김형진 團長

1. 記者會見文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제 7차 북남 체육회담이 있었습니다. 제 7차 북남 체육회담으로 말하면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회담이었습니다.

특히는 7차회담으로 말하면 은겨레와 또 체육인들 나가서는 세상사람들에게 북남유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수표하도록, 서명하도록 큰 소문을 낸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바와 같이 제 7차 회담에서는, 7차 회담에서는 유감스럽기도 유일팀구성·참가에 관한 기본방안과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합의서의 수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유일팀 구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문제에서도 토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서명을 못했습니다. 왜 서명을 못했는가? 회담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우리는 오늘 7차 본회담에서 기본방안 합의서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보장장치에 관한 문제에 완전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 4차 실무대표접촉과 제 5차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 정의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제 4 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지금까지 근 10 개월 걸쳐서 토의한 유일팀 구성방안과 공동추진기구의 구성·운영방안에 지적되지 않았던 부칙이라는 문제를 무려 삼십여개의 조항을 포함시켜서 제기함으로써 회담타결의 막바지에 오른 회담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습니다.

4 차 접촉에서 제기한 남측의 부칙에는 본회담의 의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친선교환경기, 시설답사반 교환등과 같은 의제밖의 문제들을 제시했는가 하면 또 기타 이여의 부칙에서는 이미 견해일치를 보고 구두로 합의한 유일팀 구성방안의 합의서 내용과 공동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의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심의·결정해야할 사항들을 부칙에 끼집어 내어 본회담에서 토의하고 합의를 보아야 완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당한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제 4 차 실무접촉과 5 차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제기한 부칙의 부당성을 이야기 하면서 부칙을 철회할 것을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 6 차 본회담에서 제 4 차, 5 차 실무대표 접촉에 위임한 유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정리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칙의 제기로 해서 아무런 실무대표 접촉이 본회담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전을 벌려 왔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제 7 차 회담에서는 사실상 우리들은 이미 세상사람들

에게 오늘 7차회담에서 합의서들을 선포, 서명해서 세상에 유일팀 구성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한 조건에서 남측에서 부당한 부칙의 제반사항들을 철회하고 합의서 문안정리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오늘 회담에서 친선교환경기, 시설답사반 교환 이 문제는 철회하였습니다.

또 용어의 용어해석, 부속합의서 용어해석에 지적되어 있는 선발경기장소,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일부항들을 사실상 본회담 의제와는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오늘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럽고 사실상 회담의 막바지에 난관을 조성했던 결림들을 일정하게 허물어 버린 것으로도 됩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부칙의 내용에 대해서 조항별로 따져 얘기하면서 그 부칙이야말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므로 그 토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그 사항들은 다시말하면 남측이 제기한 부칙의 나머지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문제이므로 공동위원회에서 토론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부칙이, 남측이 제기하는 부칙이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를 수표하고도 앞으로 이행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엮어낼 수 있는 것으로 된다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부칙으로 말하면 그 부칙이 토론된다고 하여 이행을 엮어낼 하등조건도 없는것입니다.

이행을 담보하는 문제는 합의서의 양측 올림픽위원회에 위임해서 수표하고, 서명하고 또 그 합의서를 보장하도록 담보하는 정부 당국의 담보

각서면 대단히 족한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는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이행보증하는 각서도 교환할 것을, 이미 안을 남측에 실무접촉때 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유일팀 구성과 그 이행에 관한 담보는 어느 모로보나 다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담 마지막까지 남측은 부칙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칙을 놓고 말하면 기본 합의서도 아니고 말그대로 부칙입니다. 4차와 5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은 부칙이 마치나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에서 핵으로 되는듯이 주장하던 나머지 유일팀 구성과 구성참가에 관한 기본 합의서 다시말하면 10개항 합의서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을 주장하던 나머지 기본합의서를 빈껍데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남측 일부대표들 속에서는 세상사람들이 명백히 또 여러 기자선생님들이 전번 6차 실무회담 결과를 남측 기자선생들 보도한 바와같이 이미 6차회담에서 10개항 구성방안 문제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보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측 일부대표는 그 합의본 문제도 사실상 합의가 아니다 서명을 해야 합의지 합의 아니다 이렇게 명백히 말한 것과 같이 사실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어느측에 더 의심스러운가 하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7차 본회담에서 남측이 부당한 부칙을 철회하고 그 부칙의 내용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돌아가서 철회하도록 잘 연구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날짜는 본회담은 1월 29일, 실무대표접촉은 1월 22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것 있으면 하십시오.

2. 質疑·應答

質問：부칙 철회가 안될 경우에는 다음에도 합의 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이터통신입니다.

答辯：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은 부칙이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조항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남측이 이미 제기한 이사항을 제기해서, 사항을 밝혀서 우리에게 제기해서 동의함으로써 서로가 합의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質問：오늘 회담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평가를 내려주시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남측의 양보도 있었는데 일부 평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 주실수는 없어요?

答辯：이제 평가하셨는데, 평가했는데 남측에서는 일부 조항들을 철회함으로써 말하자면 얼마만큼한 디딤돌이, 난관이,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러나 부칙문제 그 자체를 합의서의, 기본 합의서에 포함시키도록하는 근본 취지에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質問：아시안대회가 가까와 있는데 늦어도 언제까지 완성·합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答辯 : 쌍방은 12월까지 합의사항 의견을 모두 합의하도록 의지를 표명해
서 12월에 사실상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1월에 이 합의를 정식문건으로 서명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밝힌 합의서
초안을, 합의서 안을 보면 합의서의 발효기일은 90년 2월 1일로 지적되
어 있습니다. 2월 초하루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